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황 인 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초임보육교사의 경험 탐색

202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윤 수 빈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초임보육교사의 경험 탐색

황 인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윤 수 빈


인 준 서

윤수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11월

심사위원장 전 홍 주 

심 사 위 원 김 고 은 

심 사 위 원 황 인 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는 데 있다. 즉, 초임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보람과 어려움 및 요구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초임보육교사가 보다 질 높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은 어떠한가?

둘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통한 보람과 어려움은 어떠한가?

셋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2022년 5월 6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 경력 3년 미만의 초임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마다 각 2회씩 총 20회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직장·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교사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는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한 면담전사본, 연구자 현장노트,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저널,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문서 등을 수집하였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며 범주화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담, 문서자료, 연구자의 현장노트,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의 저널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와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및 주기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초임보육교사들은 초임시기라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경험이 부족하여 원장 및 동료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자료나 영상을 살펴보기도 하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초임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과 중 영유아 권리존중을 다짐하고 의식하고 있었으며 영유아의 개별 성향을 존중하고 일과 운영 중 영유아에게 주도권을 제공하며 영유아 중심에서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본인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초임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가정에서도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으며 부모통신문을 통해 영유아 권리와 관련한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고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유아 권리존중을 주제로 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도 권리존중을 인식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서 경험하는 보람과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영유아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점점 성장하는 교사 본인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초임보육교사들은 정해진

일과와 교사에게 주어진 보육 외 업무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 이론이 이상적이기만 하고 여러 권리가 충돌하거나 교사마다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달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특히,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경력교사의 눈치, 학부모의 과한 요구와 불신 등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셋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를 살펴보면,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및 교사 권리를 증진하여 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세미나 형식 등의 교사교육 방법을 통해 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거나 부모와 교사가 함께 듣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초임보육교사의 적응을 지원하거나 수평적인 교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유롭게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요구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연구자	7
4.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0
1. 초임보육교사	10
1) 초임보육교사의 정의 및 특징	10
2) 초임보육교사의 어려움	13
2. 영유아 권리존중과 보육	15
1) 영유아 권리존중	15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17
3. 영유아 권리존중과 교사	19
1)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교사의 인식	19
2)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21
4. 선행연구	24

Ⅲ. 연구방법	28
1. 연구 참여자	28
2. 연구절차	36
1) 예비연구	36
2) 본 연구	37
3. 자료분석	42
4. 연구의 윤리성 및 신뢰성	47
Ⅳ. 연구 결과	48
1.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48
1)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가로서의 자질 키우기	48
2) 영유아 중심에서 보육 실천하기	52
3) 가정과 연계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하기	60
2.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통한 보람과 어려움	63
1) 성장하는 아이들과 교사	63
2) 정해진 일과와 부담스러운 업무	68
3)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	73
4) 초보교사의 미숙함	80
5) 부딪치는 인간관계	83
3.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	89
1)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한 지원	90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효율적인 교사교육 지원	97
3)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	103

V. 논의 및 결론	110
1. 논의	110
2. 결론 및 제언	120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배경	28
<표 2>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	38
<표 3> 심층면담 질문 범주 및 내용	40
<표 4> 수집된 자료	42
<표 5>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 6단계	43
<표 6> 1차·2차 코딩 내용	44
<표 7>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분석	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Christine Schulz-Reiss, 공현, 2010).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인간의 권리인 인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인권은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영유아 역시 권리의 주체로서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하며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존재이다(김민정, 2018). 영유아 권리는 영유아가 주체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영유아의 생애 시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인으로부터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도 내포한다(박혜연, 2022). 영유아기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영유아기의 초기 경험은 영유아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2011).

권리존중을 받는 영유아는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김성미, 2012). 영유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경험을 통해 권리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처럼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 즉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한다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김진숙, 2009). 그러나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영유아들은 지켜져야 할 기본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김한나, 2022).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영유아의 권리는 성인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황인애, 봉진영, 권경숙, 2017). 따라서 영유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성인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주어야 한다(박혜연, 2022).

우리나라는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1991년 11월 20일에 UN아동권리협약에 참여하며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고 2015년에는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아동 스스로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2016년에는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헌장」을 선포하였고 2019년에는 아동정책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지원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9). 또한 2020년에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아동기의 낮은 행복감과 삶의 질, 자존감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의 존중 및 실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가적 정책 수립에서 아동권리존중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존중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영유아들은 생의 이른 시기부터 오랜 시간을 어린이집에 머무르며

생활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전체 영유아의 76.1%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 이처럼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데 보육교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발달적 측면에서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매우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시기에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보육교사라는 점에서(오숙자, 최진아, 2014) 보육교사는 권리존중 보육실행을 하나의 목적으로 인식하며 영유아 권리존중에 중점을 둔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박은연, 202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보낼 때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것을 느끼고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처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김효정, 2020).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육아정책연구소(2009)에서는 보육교사를 위한 아동권리존중 지침서를 발행하였고,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도 영유아 기본권리의 개별 보장을 중시하여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8월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와 복지’를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한국보육진흥원, 2021) 어린이집 평가제 매뉴얼에도 첫 번째 평가지표가 영유아 권리존중이며 필수항목으로 구분될 만큼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22).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필수적이며, 보육교사가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 및 권리존중 보육실행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이지연, 2021; 이혜선, 2020),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김명희, 2020; 이경희, 2018; 황미선, 201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김신애, 2018)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지연(2021)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교사효능감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혜선(2020)은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영유아 권리존중의 실행 또한 높다고 보며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효능감 향상을 위한 여러 방면의 교사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황미선(2019)은 교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김명희(2020)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상호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경희(2018)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영유아 권리존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향상을 위한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김신애(2018)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영향을 주는 교사효능감, 전문성,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경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직무수행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력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며(이지영, 2012), 경력이 5년 이하일 때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6년 이상으로 경력이 많아지면 점점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순남, 1999). 이는 보육교사의 경력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김순영, 2005), 경력이 많을수록 교사효능감의 인식수준이 높고 적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문정화, 2012)는 점에서 경력이 낮을수록 교사효능감 및 전문성 인식 역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력이 낮은 초임 보육교사가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낮은 전문성 인식 및 교사효능감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직전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준비교육을 마쳤다고 하나 교사로서 현장에 입문하게 되면 교수, 학급운영, 아동들의 동기유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한꺼번에 떠맡게 되고(Brock & Grady, 2000), 교사발달 단계상 ‘생존단계’(Katz, 1985)라고 표현될 만큼 교육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며(이숙자, 2014), 경력교사와 동일수준의 직무수행을 기대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임보육교사는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잃게 되어, 결국 교수와 학습의 질이 낮아지는 교직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거나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이숙자, 2014). 초임보육교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예측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은혜(2017)는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이 실행되기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며 교사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무력감, 지나친 서류작업, 보여주기식 행사, 장시간 노동과 휴일 근무의 일상화 등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도례(2016)는 교사가 경험하는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갈등을 언급하였는데, 교사들은 개별존중의 어려움, 문제행동을 하는 영유아, 식습관지도의 어려움, 활동목표와 다른 방향의 유아 흥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김은영(2017)은 최근 부모들이 교사의 권위나 사회적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보육에 대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 교사들의 신념에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여 묵인하게 되는 갈등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민경(2018)은 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연수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도 요구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근무환경의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교사효능감, 전문성,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거나 보육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있어 보육교사의 전문성이나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사의 배경 및 교육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초임보육교사의 경우 경력보육교사에 비해 전문성 인식과 교사효능감이 낮고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에서 초임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경험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임보육교사들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친과 실천과정에서의 보람과 어려움 및 요구를 이해하고 초임보육교사들의 바람직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은 어떠한가?
2.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통한 보람과 어려움은 어떠한가?
3.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는 어떠한가?

3. 연구자

본 연구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교사로서 더욱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현재 직장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던 중 교사실 벽면에 붙은 ‘영유아 안전과 존중을 위한 선서’를 보면서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자 본인의 중도 퇴사한 초임시기를 떠올리며 연구자 스스로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잘 실천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연구자는 초임보육교사 시기에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교사 분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바빠 영유아 권리존중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교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초임보육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어떤 어려움과 요구가 있는지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경험을 탐색하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임보육교사의 다양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경험과 어려움 및 요구를 탐색해보고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임보육교사

초임교사란 교직입문 단계에 해당하는 교사로서, 교직경력 1~3년의 교사를 포함한다(Huberman, 1989). 이를 보육교사를 기준으로 구분해볼 때, 초임보육교사는 학생신분에서 교사로 옮겨와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단계의 교사로서 신규교사로 채용되어 직무수행을 위해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기간의 교사를 말한다(문정화, 2012). 유순이(2003)는 초임보육교사를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어린이집 기관에 재직한 3년 미만의 교사로 보았으며, 김현실(2014) 역시 초임보육교사란 대학에서 영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보육기관에 부임해서 근무한 지 3년 미만이 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임보육교사를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경력 3년 미만의 보육교사로 정의한다.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영유아의 의견이 실현되도록 그들의 성장권, 발달권, 교육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영유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교육하는 것(조신숙, 2018)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초임보육교사

1) 초임보육교사의 특징

교사는 교직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교육관, 학생관,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수 지식 및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변화·발달한다(신현주, 2016). Katz(1985)는 교사의 교직생활을 총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교직생활 첫 1년은 생존단계(Survival stage)로 교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교사로서의 의무감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시기로 이 시기의 교사에게는 지원·이해·위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직생활 1년 말에서 3년 사이를 강화단계(Consolidation stage)라 하는데 이 시기는 대체로 문제아동과 문제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경험이 많은 동료교사들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한다. 교직생활 3년에서 5년은 갱신단계(Renewal stage)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싫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며, 교직생활 5년 이상은 성숙단계(Maturity stage)로 이 시기의 교사들은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Fuller(1969)도 교직단계를 교직 이전 단계(pre-teaching phase), 초기 교직 단계(early teaching phase), 후기 교직 단계(late teaching phase) 총 3단계로 제시하였는데 교직 이전 단계는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실습 이전의 교사 지망생들이 속하며, 학생 때의 경험과 연관하여 교수를 생각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초기 교직 단계는 자신이 얼마

나 수용될 수 있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후기 교직 단계는 개별 학생을 위해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기라 하였다(이은영, 2001, 재인용). 또한 Newman, Burden, Applegate(1980)는 유아 교사의 발달단계를 초보 단계, 중도 단계, 전문가 단계의 3단계로 분류하여 교직시기에 따른 전문성을 기초로 발달단계를 구분하였다. 특히 박은혜(2009)는 초임교사의 발달단계를 세분화하여 기대단계, 생존단계, 좌절 및 갈등의 단계, 반성 및 회복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이 시기를 하루살이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초임보육교사에 대해 조은영(2011)은 1~3년의 교직경력을 가진 자를 초임교사로 보았으며, 고선아(2008)는 경력 1년까지를 초임교사로 보았다. 초임보육교사의 경력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는 있으나, 초임보육교사의 경력에 대한 구분은 교직의 첫 입문단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교사 행동의 특성, 기대역할, 발달단계에 따른 생애사적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현경, 2012). 초임보육교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Fuller(1969)는 초임교사는 자신이 가르칠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교육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나 실제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불안함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고 하였다(오현미, 2009, 재인용). Katz(1985)는 교직생활 첫 1년인 생존단계에 있는 초임교사는 자신이 새로운 교직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였으며, 교사로서 잘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존의 문제에 주요 관심을 둔다고 하였다(최정수, 2017, 재인용). Kathleen(2008)은 초임교사는 예비교사 시절 배운 내용과 많이 다른 실제 모습을 보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동료교사의 지원이나 격려를 받으면 에너지가 재충전되며 자신감을 회복하지만,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생존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다 교직을 떠나게 된다고

하였다(정효진, 2021, 재인용). Burden(1979)은 초임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 자신의 교수방법 향상 등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시도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교사가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교사에 대한 이미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오현미, 2009, 재인용). Newman, Burden, Applegate(1980)는 초임보육교사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다 보니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모습보다는 비전문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으나 교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변화하게 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게 된다고 하였다(정효진, 2021, 재인용).

초임보육교사는 예비교사교육을 마치고 교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강은영, 2020). 초임교사 시기는 교직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시기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교직관을 확고히 하고 성장해 나아가게 되며(이지현, 2002), 점점 교직 생활에 익숙해지고, 학생이나 동료 교사, 원장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동료교사 및 부모들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에 불안함과 걱정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초임보육교사에게는 지원, 이해, 격려, 위로 등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박은혜 외, 2002),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정혜옥, 이옥형, 2011). 또한 박지현(2021)은 초임보육교사가 교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동료교사 및 부모들과 긍정적 관계를 지닌다면 전문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임보육교사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나 긍정적이고 배려 깊은 직장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초임보육교사는 예비교사교육을 받고 보육현장으로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단계의 교사로서, 자신의 교직관을 확실히 하기 위해 원장 및 경력교사를 통해 배우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실망과 절망감을 느끼며 보육현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초임보육교사의 어려움

초임보육교사는 경력도 낮고 첫 사회생활과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혜옥과 이옥형(2011)은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하였을 때, 초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경력교사의 직무스트레스보다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 및 직무만족도는 낮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수현(2013)은 초임교사가 교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고 교직적응에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Reiman과 Parramore(1994)는 초임교사의 약 30%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처음에는 제대로 학급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서재복 외, 2009, 재인용). 이처럼 초임보육교사는 경력교사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낮은 직무만족도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초임보육교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임보육교사들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어려움을 갖는다. 초임보육교사는 이야기 나누기, 신체 활동 등 대집단 수업을 할 때 유아의 동기유발이나 부드러운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현경, 2000). 이는 초임보육교사가 경력교사와 달리 유아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준비한 수업목표와 내용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박은혜 외, 2002). 또한, 초임보육교사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유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

해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주영, 2003). 이처럼 경력교사에 비해 초임보육교사들은 유아를 통제하는 방법과 수업에 적절히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황경숙, 2005)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 내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다. 초임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유아뿐만 아니라, 학부모, 원장, 동료교사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다. 초임보육교사는 동료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이은희, 2012), 원장과 경력교사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오히려 무능하게 보일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주영, 2003). 이와 함께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보육업무 이외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다. 과도한 업무에 대한 초임보육교사의 미숙한 대처와 부족한 처리능력은 초임보육교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으며(강상이, 2002) 송나리와 권정윤(2013)은 원장 및 경력교사가 초임보육교사들이 교직 초기 단계임을 인지하지 않고 과한 업무를 기대할 때, 초임보육교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유아 지도의 어려움, 유아교육기관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기타 행정업무 처리 미숙함 등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며 회의감, 자격지심을 느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정혜옥, 이옥형, 2011).

초임보육교사 시기는 직업 지속 여부를 넘어서서 앞으로 어떤 교직원일 것이고 어떤 교사로 살 것인지 교사상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염지숙 외, 2008). Berliner(1988)는 교직 입문 후 최초 3년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기이며 교육현장을 통해 실제적인 교직경험을 익힐 수 있는 최적기라고 설명하였다. Bullough(2013)는 초임교사가 이 시기에 진정한 교육자가 될 것인지, 월급쟁이 교사가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고 하였다. 초임보육교사이기에 당연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며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노력과 열정을 다하게 되고 동료 교사와 협력하며 더 발전된 교사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권규리, 2019). 그러므로 초임보육교사이기에 갖게 되는 교사직에 대한 열정의 힘을 극대화하고 변화와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유리, 2015). 따라서 초임보육교사 시기는 자신만의 교수방법과 동료관계, 업무처리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므로 초임교사가 조직에 잘 적응하여 더욱 발전되고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원장 및 동료교사의 적극적 지지와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직장 분위기가 요구된다(이은희, 2012).

초임보육교사는 경력보육교사에 비해 적응과 생존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교수방법, 기타행정 업무,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 시기에는 동료교사와 협력하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지만, 자신의 교수방법에 회의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임보육교사가 이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지닌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료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허용적인 분위기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2. 영유아 권리존중과 보육

1) 영유아 권리존중

영유아 권리존중은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게 존중받는 것을 말한다(안사라, 2012).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건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얻게 되는 천부의 권리이며, 영유아는 언제,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

어야 한다(최진아, 이완정, 2020).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하고 정당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진숙, 2009).

아동권리에 대한 최초의 국제선언은 1922년 영국의 아동복지회(Save the Children Fund)를 창설한 에글렌타인 쟁(Eglantyne Jebb)에 의해서 작성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1924)이다. 이후 1959년 국제 연합은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을 검토하여 제14차 총회에서 이를 채택하여 생존권, 출생권, 행복추구권, 여가권, 교육권을 선언하였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발표 및 채택하였는데(박한비, 2014)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초의 국제법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 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 9월 2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여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며(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의 권리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을 수 없고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김은옥, 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 비차별,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 4가지 일반원칙으로 구분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언급한 주요 원칙들을 살펴보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에게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금지 원칙은 아동의 피부색,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재산, 장애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6). 아동의 생명존중·발달의 원칙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

달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야 하며 생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은 아동이 자유로운 참여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6).

즉, 영유아 권리존중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말한다. 다시 말해, 모든 아동은 생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존중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2항, 2011). 보육은 단순히 타인에 의해 맡겨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주며, 국가와 사회와 공동으로 양육을 책임지며 아동들의 부모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김은옥, 2019).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라는 용어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아동기관 전문가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육교사용 자료집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개발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서영숙 외, 2009).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란 영유아의 성장권, 발달권, 교육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며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김진숙, 2009).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영유아의 의견이 반영되는 일과를 보내는 것에

서부터 출발한다(송지희, 2020).

최근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보내는 영유아가 많아짐에 발달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보육교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이 중요하다(박혜연, 2022). 영유아가 보육교사에게 맡겨지는 순간부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시작되어야 하며(고영운, 2017),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집 일과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김주영, 2021).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보육현장 안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며(육아정책연구소, 2009),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타인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서영숙 외, 2009).

영유아기는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존중받는 경험은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윤매자, 2010). 영유아기에는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겪은 권리존중의 경험은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까지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신애, 2018).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권리존중이 무엇인지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정선영, 2017) 영유아 시기에 권리존중 보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박혜연, 2022). 영유아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며(김진숙, 2009),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와 교사와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 영유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영유아의 인성과 인격 형성에 필수적이다.

즉,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를 반영한 일과를 보내는 것을 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영유아 그 자체로서 존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므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영유아 권리존중과 교사

1)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교사의 인식

영유아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기에 결정적인 시기이므로(김숙자, 김현정, 2008) 어린이집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박은혜, 2009), 영유아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 더욱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류수정, 2012).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선신, 윤현숙(2019)은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강인숙, 이희경(2016)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전문성이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고효주(2019)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황미선(2019)에 따르면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이 높

을수록 아동 최선의 이익 존중 수준과 일과에 대한 존중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영유아권리존중 실행의 전체점수에 영향을 미쳐 영유아에 대한 존중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더불어 박효선(2022)은 초임교사를 향한 경력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초임교사가 교사 첫해에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력교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정민지(2020)는 경력교사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초임교사는 자존감과 성취감이 높아지며 이는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을 증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 인식에 경력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 인식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강희정, 2018). 영유아 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은경, 2018), 영유아 권리 인식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관련이 있으며 영유아 권리 인식이 높으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도 증진된다고 보고하였다(이미향, 2020). 따라서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 인식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한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박혜진, 2020). 그러나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 인식이 높아도 영유아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알지 못한다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김은옥, 2018)는 점에서, 보육교사는 영유아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할 것이다(이미향, 2020).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전문성, 정서적 지지가 영유아 권리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영유아 권리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도 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권리 인식수준이 높아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인식해야 하므로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은 영유아가 자신과 주변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를 통해 느낀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경청하며, 영유아의 생각이 실현되도록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서영숙 외, 2009).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보육교사이며,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여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적절한 서비스와 환경이 제공될 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김진숙, 서영숙, 2012).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함으로써 영유아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의 주체자임을 이해하며 사회적 지식과 가치, 기술, 태도를 익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발달시켜 민주시민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엄상희, 2021).

보육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방법을 잘 이해하며 그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모은경, 2022). 영유아 권리존중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은 어린이집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권리존중을 실천하고 영유아를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며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서영숙 외, 2009). 더불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보육교사 자신의 감정상태에 따라 영유아를 달리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일관성 있게 반응해야 한다(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교사는 영유아의 미

숙한 언어를 이해하고 영유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영유아들의 질문에 교사의 주도권을 줄이며 영유아의 대답을 기다려주고, 긍정어를 사용하며 영유아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침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영유아에게 혼자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며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고, 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교사가 이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이재연 외, 2015). 또한 교사는 영유아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능동적인 힘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김주영, 2021) 영유아에 대한 따뜻한 정서적 지원과 사랑, 공감하는 태도도 지녀야 한다. 보육교사로부터 따뜻한 애정과 관심 어린 사랑을 경험한 영유아는 보육교사와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에게도 애정과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다시 말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을 위해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격려해 주며, 영유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Lansdown, 2005). 또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권리를 찾고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영유아에 대한 관점의 변화, 영유아의 세계 이해,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방법 등을 개선하고 끊임없이 반성과 성찰해야 한다(윤매자, 2010).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성미(2012)는 보육교사의 보육신념과 행복감이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지선(2018)은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홍효의(2017)는 영유

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보육교사의 민감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고영운(2017)은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소진이 낮을수록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경희, 정희정(2018)은 전문성 인식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이은경(2019)은 영유아 권리 인식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 최은혜(2017)는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 활동 외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김주영(2021)은 교사들이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발달의 개인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개인차를 존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지 않아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영유아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은 교사 역할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실천함으로써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선행연구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영유아 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어려움 및 요구를 탐색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를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 및 실천과 어려움 및 요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영미(2020)는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에서 교사들이 영유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보고 보호하는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은미, 정혜영(2016)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과정 속에서 경력교사와 초임교사 간에 협력적이고 긴밀한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혜연(2022)은 혼합연령반과 단일연령반을 모두 경험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 및 어려움을 알아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유아 개개인에게 맞추어 융통성 있게 일과시간을 조절하고 있었으며 유아의 의견을 물어보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고 발달수준을 고려한 놀이와 활동을 계획하여 아이들의 발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진경(2021)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 경험을 알아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유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며 만족감과 확신을 느끼고 있었

으며 아이들과 유대감과 신뢰감이 형성되고 부모나 원장으로부터 인정받으며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영유아의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일과 조절, 유아의 의견 수용, 발달수준을 고려한 놀이 계획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협력적인 어린이집 분위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상호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어려움 및 요구를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진경(2021)은 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 중 판단과 선택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속상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본인의 모습에서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겪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해소법과 관련한 교사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은혜(2017)는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및 어려움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교사가 영유아의 개별적 발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개인차를 존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유미와 안지혜(2014)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행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기관의 조직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영유아 권리존중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권리존중 실천이 각자의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상호협력하여 상황

에 따라 적절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우진경(2021)은 교사들이 급·간식 시간에 대한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원장과 다른 운영 가치관, 교사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기관 분위기와 전통, 유아의 의견이 수용되기 어려운 특별활동 시간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과 기타 서류 업무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하였다. 김혜전(2020)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천한 유아권리존중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가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 비차별적 상호작용,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 기회 제공, 표현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영유아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아 권리존중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윤진주(2017)는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 권리중요성 및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영아와 유아별로 체계적이면서도 명료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에 관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을 요구하였고 영유아의 독특한 발달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명료한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지도서가 제공되어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어려움과 요구를 탐구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원장과 다른 운영 가치관, 교사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기관 분위기와 전통, 유아의 의견이 수용되기 어려운 특별활동 시간,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없어 이를 마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탐색하고 실천과 어려움을 알아보며 요구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호하고 애매한 영유아 권리존중으로 인해 교사들은 여전히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초임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과 관련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초임시기로 인한 생존 및 적응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실행이 요구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여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경험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이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육현장에 처음 입문한 경력 3년 미만의 초임보육교사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초임보육교사들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의 초임보육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은 영아반과 유아반에 따라 어려움 및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에 참여하는 초임보육교사의 담임학급이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배경

교사	교사경력	교사연령	기관유형	학력	담당학급
A교사	1년 3개월	25세	직장	대학졸업	만 3세
B교사	1년 3개월	27세	직장	대학원졸업	만 2세
C교사	3개월	24세	직장	대학졸업	만 4세
D교사	3개월	24세	직장	대학졸업	만 1세
E교사	1년 3개월	27세	민간	대학졸업	만 1세
F교사	3개월	24세	민간	대학졸업	만 3세
G교사	1년 3개월	28세	민간	대학졸업	만 4~5세 통합
H교사	1년 9개월	28세	국공립	대학졸업	만 1~2세 통합
I교사	3개월	24세	국공립	대학졸업	만 2세
J교사	8개월	27세	국공립	대학졸업	만 4세

1) A교사

A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였고 학부 졸업 후 바로 직장 어린이집에 취업하여 현재 경력은 1년 3개월로, 만3세 반 담임으로 재직 중인 초임보육교사이다.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권리존중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영유아 권리존중 세미나는 영유아 권리존중 선서를 읽으며 권리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각 교실에서 겪는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딜레마나 갈등상황을 이야기 나누며 진행된다. A교사는 이러한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세미나를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 보육을 실천하는데 애매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원장, 고경력 교사와 이야기 나누며 해결책과 기준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A교사는 어린이집 중도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동료 교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A교사는 초임보육교사로서 어떻게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지 몰라 힘들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였다.

2) B교사

B교사는 아동학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현재 경력은 1년 3개월로 직장 어린이집에서 만2세 반 담임으로 재직 중인 초임보육교사이다. B교사는 다양한 교사교육을 들으면서 점점 영유아 권리존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지난해 받은 교사교육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방법을 배웠다면, 올해 받은 교사교육에서는 아이의 행동을 고치고 지도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하라고 배우며, 유아의 행동지도에도 영유아 권리존중이 반영되어야 함을 알고 영유아 권리존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B교사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며 인권위원회에서 연구보조원으로서 영유아 권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B교사는 그곳에서 아동학대·권리에 대한 보고서, 아동 권리협약 등을 읽어보며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덕분에 다른 초임보육교사들보다 영유아 권리존중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3) C교사

C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복지학을 전공하였으며 졸업 후 바로 직장 어린이집에서 만4세 담임으로 재직하여 경력 3개월 된 초임보육교사이다. C교사는 직장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라 재단에서 하는 신입 교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교육에서 권리존중 관련 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일지 및 적응보고서 작성방법, 안전교육, 영양교육 등 너무 많은 종류의 교육을 동시에 받아 권리존중 관련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육현장에 와서 교사 회의 중 ‘영유아 권리 선서’를 읽으며 영유아의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원장이 계속해서 영유아 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영유아 권리존중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C교사는 현재 중도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교사라는 직업에 회의감이 들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아

이들의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어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4) D교사

D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바로 직장 어린이 집에서 만1세 담임으로 재직 중인 경력 3개월 된 초임보육교사이다.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교육받은 경험과 학부 때 들은 권리존중 관련 수업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도 영유아 권리존중은 공기처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 말하며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공기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처럼 영유아 권리존중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하였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이 없으면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였다.

D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무능한 교사로 보일 것을 염려하여 아이들 안전에 예민하여 영유아 권리존중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첫 직장생활이라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가 많이 신경 쓰인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초임보육교사라 다른 교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5) E교사

E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만1세 담임으로 재직 중이며 경력은 1년 3개월 된

초임보육교사이다. E교사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권리존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매년 ‘아동권리 지킴이’ 교사를 정해 영유아·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E교사가 ‘아동권리 지킴이’ 교사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 아동 권리존중 교육 연간 계획안을 작성하며 다양한 권리존중 교육에 대해 찾아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권리존중의 중요성과 권리존중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아동권리 지킴이’ 역할을 맡은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거나 교사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유아 권리존중은 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해진 일과,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기에 부족한 교사 수 등으로 인해 온전히 지키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E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 이론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고 다양한 권리존중 교육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6) F교사

F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만3세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며 경력 3개월 된 초임보육교사이다. F교사는 대학생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권리보장’을 주제로 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등을 존중하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모든 아이가 놀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F교사는 학부 때 권리존중 관련 수업인 ‘아동폭력 예방 교육’을 들은 경험도 있지만,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시험을 위해 암기식으로 외우다 보니 기억에 남지 않아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현장 경험 없이 권리존중 관련 수업과 교육을 들어 영유아 권리존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막연히 ‘아이들 권리존중,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보육현장에서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7) G교사

G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민간 어린이집 만4~5세 통합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여 1년 3개월 경력의 초임 보육교사이다. G교사는 교사교육에서 영유아 권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유가 생겨 권리존중 보육을 1년 차 때보다는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할 여유가 생긴 거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에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것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G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과 관련하여 1년 차 때 자신의 모습과 2년 차 때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 뿌듯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모습이 나아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사역할에 좀 더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반응이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8) H교사

H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였고 대학 생활 중 휴학하여 다른 대학 동기보다 늦게 어린이집에 취업하였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1~2세 반 담임으로 재직 중이며 총 경력은 1년 9개월 된 초임보육교사이다.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여 ‘초록우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 실습을 나간 경험이 있으며 그곳에서 학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배우며 아동학대 예방과 영유아 권리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학대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더욱 잘 인식할 수 있었고,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H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이란 교사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H교사는 교사들이 권위를 내려놓을 때 아이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게 되고 존중해주며, 어린이집의 일과가 유아 주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9) I교사

I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였고 바로 취업하여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2세 반 담임으로 재직 중인 경력 3개월의 초임보육교사이

다. I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은 없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영유아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영유아들이 어른들보다 힘이 약하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이 많으므로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I교사는 현재 어린이집 적응과 동료 선생님과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권리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도 막상 어린이집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육현장에 적응하기 바쁘고 동료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일과를 보내다 보니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보다는 동료 선생님에게 잘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동료 선생님과 오랜 시간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라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할 겨를이 없고 현재 어린이집 부적응으로 인해 우울감이 커서 아이들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10) J교사

J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4세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경력 8개월 된 초임 보육교사이다. J교사는 학부 때 들은 권리존중 관련 수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배운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경력 보육교사의 조언과 사례 중심으로 한 교사교육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J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을 ‘자유로움’이라고 이야기하며 유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것이 영유아 권리존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아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존중받을 때 내재된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면서 유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하지만, 현재 보육현장은 정해진 일과와 부족한 놀잇감과 공간 등으로 인해 권리존중 보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아쉽다고 하였다.

2.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연구주제 및 면담 질문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3월 17일과 2022년 3월 19일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직장 어린이집 초임보육교사 2명과 민간 어린이집 초임보육교사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교사마다 1회씩 총 3회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고 직장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는 각 1회씩 전화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예비연구 참여자에게 목적과 면담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소요시간은 교사 1인당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예비연구 결과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대학교 때 관련 수업을 들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운 내용을 보육현장에 실천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적용하기 바쁜 보육현장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임

보육교사들은 업무처리능력 부족,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이해 부족, 어린 이집 내 교직원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지도, 놀이 상황 및 활동시간 등,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실제적인 실행 사이에서의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으며, 초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서의 어려움과 요구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더 개방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질문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한 사례와 보람 등도 탐색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을 추가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보육교사 경력 3년 미만의 초임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 연간보육계획안, 아동권리헌장, 영유아의 안전과 존중을 위한 권리 선서, 아동학대 및 권리존중 가정통신문 등의 문서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저널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층면담

본 연구는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관한 인식과 어려움 및 요구 탐색을 알아보기 위해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2년 5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10명의 초임보육교사들과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 1인당 2회씩, 총 20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1회의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 1인당 50분에서 80분 정도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장소는 참여자들이 요청하는 장소를 우선으로 하여, 연구 참여자가 안정감을 느끼며 면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피면담자의 반응을 끌어내는 면담이다(김영천, 2017).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되,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나 속도를 융통성 있게 바꾸고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더 들어야 하는 경우 추가 질문을 하였다. 심층면담 이후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SNS를 통해 추가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

회기	교사명	기관유형	면담일	소요시간 (분)	내용
1차 개별 면담	A교사	직장	2022년 5월 25일	65분	- 연구주제 및 목적 안내
	B교사	직장	2022년 5월 14일	80분	-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C교사	직장	2022년 5월 14일	65분	- 1차면담
	D교사	직장	2022년 5월 6일	50분	: 일반적 배경 및 영유아 권
	E교사	민간	2022년 5월 18일	65분	리존중 관련 교사교육 참여
	F교사	민간	2022년 5월 11일	65분	경험과 사전 경험, 영유아
	G교사	민간	2022년 5월 30일	60분	권리존중 보육실천경험 및
	H교사	국공립	2022년 5월 24일	75분	보람, 영유아 권리존중 보

	I교사	국공립	2022년 5월 8일	55분	육 실행을 위한 노력
	J교사	국공립	2022년 5월 17일	60분	
2차 개별 면담	A교사	직장	2022년 7월 13일	65분	- 1차면담 정리 및 확인 - 2차면담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어 려움, 영유아 권리존중 보 육개선을 위한 요구
	B교사	직장	2022년 6월 20일	75분	
	C교사	직장	2022년 6월 17일	65분	
	D교사	직장	2022년 6월 4일	55분	
	E교사	민간	2022년 6월 28일	70분	
	F교사	민간	2022년 6월 16일	65분	
	G교사	민간	2022년 6월 22일	70분	
	H교사	국공립	2022년 6월 26일	80분	
	I교사	국공립	2022년 7월 2일	60분	
	J교사	국공립	2022년 6월 21일	65분	
전체 면담 소요시간				1,310분(약 22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면담의 모든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1차면담 시작 전, 연구 참여자와 라포형성을 위해 15분에서 20분 정도 연구 참여자가 어린이집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며 자연스럽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연구자가 초임보육교사 시기에 겪었던 어려움 등을 공유하며 연구 참여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덕분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심도깊은 면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1차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차면담에서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1차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해석이 모호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2차면담은 초임보육교사로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과 요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1차면담 정리내용을 살펴보고 1차면담 시 말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말

하며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2차면담은 1차면담 때보다 더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 및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 이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SNS, 유선전화를 통해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면담 후 녹음된 자료들은 즉시 전사하였으며 심층면담 질문 범주 및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심층면담 질문 범주 및 내용

면담준거	질문내용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경력 및 나이, 최종학력 - 근무기관유형 및 담당학급연령 -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 참여 경험 -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사전 경험(대학에서의 수업 경험 및 기타 경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생각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생각 - 보육현장에서 느끼는 영유아 권리존중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사례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서의 보람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서의 어려움 : 영유아와의 상호작용(놀이 및 활동, 생활지도 등) : 교직원 및 부모와의 관계 등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어려움의 원인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어려움의 해결방안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한 교사의 노력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

(2) 현장 노트와 저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심층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면담 상황에 대한 요약, 연구 참여자의 반응 및 표정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였고 저널 작성을 수락한 연구 참여자의 저널을 수집하였다.

연구자의 저널은 심층면담이 끝난 후, 연구 당일 면담에 대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보완하여 기록하였다. 현장 노트와 연구자 저널을 통해 면담에서의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다음 면담 시 반영해야 할 추가 질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저널은 저널 작성을 수락한 초임보육교사 8명에게 면담기간 동안 1주일에 1회씩 연구 참여자 별 총 8회의 저널을 제공받았다. 연구 참여자 저널은 초임보육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했던 경험과 느낌, 반성 등을 적은 저널로서, 이를 통해 개별면담 때 생각나지 않았거나 미처 말하지 못했던 초임보육교사들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경험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과 관련하여 초임보육교사들의 반성적 사고 경험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문서수집

어린이집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 아동권리현장, 영유아의 안전과 존중을 위한 권리 선서,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전국의 성인과 아동 2,270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아동권리 인식조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자가체크리스트와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보육교사 핸드북을 수집하였다. 또한 보육현장의 실제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을 살펴볼 수 있는 아동

학대예방 및 권리존중교육 연간계획안,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한 교사교육자료 및 부모교육자료, 아동학대 및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가정통신문 등을 수집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심층면담 녹음 전사내용, 현장 노트,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저널기록, 수집된 문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수집된 자료

자료목록	자료수집기간	수집된 자료
면담전사본	2022년 5월 6일 ~2022년 7월 13일	총 20회, 녹음전사기록(A4용지, 162장)
현장노트	2022년 5월 6일 ~2022년 7월 13일	현장노트(A4용지, 20장)
연구자 저널	2022년 5월 6일 ~2022년 7월 13일	연구자 저널(A4용지, 10장)
연구 참여자 저널	2022년 5월 23일 ~2022년 7월 15일	연구 참여자 저널(A4용지, 64장)
문서자료	2022년 5월 6일 ~2022년 7월 13일	영유아 권리존중 연간보육계획안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자료 영유아 권리존중 부모교육자료 아동권리현장 직장보육시설 권리 선서 아동학대 및 권리존중 가정통신문

본 연구에서 김영천(2017)의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 6단계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 자료 읽기 및 정리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2단계, 분석적 메모쓰기 단계에서는 1차 심층면담 후 연구 참여자에게 정해진 질문만 하고 융통성 있게 질문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차 심층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일화를 끌어내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5>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 6단계

단계	관계	분석절차	세부내용
1단계	↓	자료 읽기/정리	자료의 반복적 읽기와 자료 정리
2단계	↓	분석적 메모 쓰기	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
3단계	↓	1차 코딩	코딩을 통한 코드와 범주의 초기 생성
4단계	↓	2차 코딩	추가적 코딩을 통한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 파악
5단계	↓	3차 코딩	최종적 코딩을 통한 범주들의 통합 및 문화적 주제 발견
6단계	↓	연구 결과 재현	시각적 모형, 이론 제시, 명제 제시, 표, 그림, 내러티브

출처: 김영천(2017). 질적연구방법론 1, Bricoleur.

3단계, 1차 코딩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에서 반복되는 주제나 단어를 각각 다른 색 볼펜으로 표시하여 범주를 생성하였고 4단계, 2차 코딩단계에서는 범주화된 개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1차·2차 코딩을 정리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1차·2차 코딩 내용

	1차 코딩	2차 코딩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경험	다짐과 의식하기 스스로 여유가지기 원장 및 교사들과 의견 나누기 격려하고 기다려주기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가로서 자질 키우기
	유아의 생각 존중하기 선택의 기회 제공하기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하기	영유아 중심에서 보육 실천하기
	학부모와 권리존중 관련하여 소통하기 권리존중 관련 부모교육 제공하기	가정과 연계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하기
	교사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한 보람 점차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한 보람 여유로워진 교사의 모습에서 느끼는 보람 변화하는 보육에 맞춰 함께 성장하는 교사의 모습을 통한 보람	성장하는 아이들과 교사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어려움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힘든 보육현장 단체생활로 인해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기 힘든 보육현장 정해진 일과로 인한 개별존중의 어려움 너무 많은 행사 및 특별활동 영유아 권리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연장 보육시간	정해진 일과와 부담스러운 업무
	배워도 여전히 모호한 영유아 권리존중 여러 가지 권리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상황과 개인에 따라 변하는 영유아 권리존중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
	권리존중 인식 부재로 인한 어려움 업무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초보교사의 미숙함

안전문제로 인한 두려움		
	학부모의 과한 요구 및 불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력교사의 눈치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지 않는 원장·부모·동료교사	부딪치는 인간관계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마련 허울뿐인 휴게시간 법적 보장 불필요한 보육 이외의 업무 개선 보육교사 상여금 제도 마련 교사의 자율권 보장 및 교사의 권리 증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한 지원
	구체적 사례를 통한 교사교육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사교육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효율적인 교사교육 지원
	초임보육교사의 적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모색 수평적인 교사 분위기 조성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소통 공간 마련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

5단계, 3차 코딩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통된 주제들을 묶어 연구문제에 맞게 주제들을 포괄하는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생성하며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된 연구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분석

연구문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1.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1)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가로서의 자질 키우기	(1) 영유아 권리존중을 다짐하고 의식하기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이해하기
	2) 영유아 중심에서 보육 실천하기	(1) 영유아의 개별 성향 존중하기 (2) 일과 운영에 주도권 제공하기 (3) 영유아 본인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하기
	3) 가정과 연계하여 영유아	(1) 학부모와 소통하기

	권리존중 실천하기	(2) 학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지원하기
2.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서의 보람과 어려움	1) 성장하는 아이들과 교사	(1) 주도적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 (2) 영유아 권리존중에 발맞춰 가는 교사의 모습
	2) 정해진 일과와 부담스러운 업무	(1) 정해진 일과로 인한 어려움 (2) 부담스러운 교사 업무
	3)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	(1) 이상적이기만 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2)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 (3) 안전문제 두려움으로 인한 어려움
	4) 초보교사의 미숙함	(1) 생존이 우선인 교사 (2)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이해 부족
	5) 부딪치는 인간관계	(1) 학부모의 과한 요구와 불신 (2)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의 권리 (3) 경력교사의 눈치보기
3.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	1)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한 지원	(1)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2)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권리 증진 (3) 불필요한 보육 이외의 업무 개선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효율적인 교사교육 지원	(1)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 홍보 (2) 자유롭게 소통하는 교사교육 (3) 부모와 교사가 함께 하는 영유아 권리 존중 교육
	3)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	(1) 초임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적응 지원 (2)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소통 공간 마련

4. 연구의 윤리성 및 신뢰성

1)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자는 연구를 시행하기 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4시간 이수한 뒤 윤리적 연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제목, 목적과 방법, 연구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해 소개하였고 자발적 동의를 통해 서명을 받은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하였으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알파벳 표기를 하였다. 또한 연구 후에는 모든 자료를 파기할 것임을 연구 참여자에게 안내하였다.

2) 연구의 신뢰성

연구자는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노트, 심층면담 전사 자료,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저널,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존중 교육 연간 계획안,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부모통신문, 영유아 안전과 존중을 위한 권리 선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 후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전사 내용을 보여주며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하는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관련 석사과정 2인과 아동학 관련 석사과정 1인에게 연구방법이나 연구 결과 해석에서의 오류가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뢰성 높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적응과 업무 파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원장이나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 나누며 의견을 주고받거나 반성적 저널쓰기 등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여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에서도 일상 속에서 자녀의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한 영유아 권리존중 활동도 실천하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가로서의 자질 키우기

초임보육교사들은 경력이 많지 않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 영유아 권리존중을 다짐하고 의식하기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을 끊임없이 다짐하고 의식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의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일과 중 감정적으로 힘들어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항상 교실에 들어가기 전 마음속으로 외쳐요.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아보자.”, “화내지 말고 아이들 이야기 잘 들어주자.” 라고 외치며 마음을 다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욕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를 화나게 한 아이에게 “선생님 한 번만 안아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나누니 괜찮아졌어요.

(H교사 면담, 2022.05.24)

그리고 화가 날 때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면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어서 저도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는 순간에는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감정을 조절해요. 교사가 화가 나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A교사 면담, 2022.05.25)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는 교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대한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교사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터득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다 보면 교사가 힘든 순간이 생기지만, 영유아들의 권리존중을 위해 교사의 인내와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는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저널을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도움 된다는 주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짧게라도 쓰기 시작했는데 일과 중에는 정신도 없고 아이들 보기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했거나 무시했던 경험을 떠올

리며 저널 쓰며 반성하고 있어요.

(C교사 면담, 2022.05.14)

제가 이번에 ‘아동권리 지킴이 활동’을 담당하며 어떤 활동을 하면 아이가 쉽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었고 교사들과 다양한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사례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동권리 지킴이 활동을 맡은 덕분에 계속해서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같아요.

(E교사 면담, 2022.05.18)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자신의 일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반성적 저널을 쓰기도 하며 일과 중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아동권리 지킴이 활동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이해하기

초임보육교사들은 초임시기라 경험이 많이 부족하여 원장이나 경력있는 보육교사와 함께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받고 있었다.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 토론하기도 하고 관련 자료나 영상을 함께 찾아보기도 하였다.

저희 원은 원장님께서 육아정책연구소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육아정책연구소 TV에서 나온 ‘대한민국 아동권리의 현주소와 법적 개선 방안’ 영상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에 있는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

음 프로젝트1' 영상을 공유해주셔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시청했고 '존중해주세요. 영유아의 권리' 라는 핸드북을 요약하고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C교사 면담, 2022.05.14)

아무래도 저는 아직 경력이 많지 않아 경력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해주신 조언 등은 새겨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추석 행사가 끝나고 단체 사진 찍을 때 키가 작은 아이가 제일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키가 작은데 뒤에 가면 어떡해" 하면서 그 아이를 앞에 앉혔어요. 그때 경력 선생님께서 그 말을 아이가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았던 적이 없어서 그게 상처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 말을 아이가 인지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경력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H교사 면담, 2022.05.24)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원장과 경력보육교사의 조언을 새겨들으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영상이나 핸드북 등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경력보육교사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해주신 조언은 새겨들으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교사들끼리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책 내용을 공유하거나 '한국의 어린이 인권', '아동학대의 연장선 가스라이팅' 등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영상 시청하고 반성적 저널 쓰기를 하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도 매 교사 회의 전에 하고 있고 2021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 기사를 찾아보고 평가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E교사 면담, 2022.05.18)

교사교육 담당 선생님이 '이럴 땐 어떻게?' 라는 주제로 일과 중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사례를 각 반의 교사에게 받아서 유인물로 만들어 공유해요. 교실 내에서 겪는 영유아 권리존중의 어려움을 여러 교사와 공유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고 의견을 교환해요.

(J교사 면담, 2022.05.17)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함께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를 꾸준히 하기도 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반성적 저널 쓰기를 하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원내 교사교육 시간에 각 반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2) 영유아 중심에서 보육 실천하기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와의 활동을 진행할 때 영유아의 개별적 성향을 고려하여 일과를 운영하였으며, 영유아의 의견을 일과 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영유아 중심의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받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영유아의 개별 성향 존중하기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낮잠 및 식사 습관 등의 개별적인 성향을 존중하여 융통성 있게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금요일이라 00가 피곤했는지 낮잠 시간 전부터 “자고 싶어요.” 이야기하였다. 이불을 빨리 퍼주게 되면 다른 영아들도 이불을 퍼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놀이하고 싶은 아이들이 공간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고민되었다. 하지만 00이의 발달권을 존중하여 00이가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언어영역에 이불과 베개를 제공해주고 눕혀주었다. 다른 아이들도 공간적으로 방해받지 않을 수 있었고 피곤한 00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A교사 2차 저널, 2022.05.28)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낮잠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융통성있게 낮잠 시간을 조정하여 영유아의 개별 성향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영유아마다 낮잠 시간이 달라 개개인의 낮잠 시간에 맞게 일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간식시간이 끝나가는 데 천천히 간식을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다급해서 “00아 곧 정리 시간이니깐 얼른 먹어.” 라고 했더니 00이가 “선생님 떡이 너무 쫄득해서 천천히 먹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해진 일과가 있어 그냥 간식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의 발달권을 존중해서 기다려줬어요.

(D교사 면담, 2022.05.06)

점심시간에 00이가 항상 밥을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늘 촉박하게 양치를 하고 낮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00이가 밥을 덜 먹어도 그냥 정리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정리해버리면 00이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성장할 발달권을 침해받는 거니까 미리 먼저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기다려주고 있어요.

(G교사 면담, 2022.05.30)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가 급·간식을 천천히 먹어 정리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영유아의 균등한 영양분 섭취를 위해 영유아가 충분히 급·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었으며 영유아마다 다른 급·간식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2) 일과 운영에 주도권 제공하기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모든 일과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고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놀이 장소나 정리 시간을 결정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영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에 아이들이 백설 공주 책에 엄청 흥미를 보여 백설 공주 동극까지 놀이가 확장되었어요. 그런데 백설 공주 역할을 전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분 없이 다들 백설 공주 역할을 하고 싶어 해서 기존에 계획한 동극 활동을 수정하여 3일에 걸쳐서 5번 정도 동극 놀이했어요. 그리고 동극 놀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관객 역할이나 조명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중했어요.

(G교사 면담, 2022.05.30)

아이들이 갑자기 ‘동화 만들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유 놀이시간에 동화 만들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만든 동화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동화발표회도 하게 되었어요. 동화발표회 전에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노래도 틀어주고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교실 불도 켜겠다고 쳐보고 하며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여 놀이했던 경험이 있어요.

(J교사 면담, 2022.05.17)

아이들과 ‘반장선거 하는 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도 반장 뽑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여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매주 금요일마다 반장선거를 하게 되었다. 교사가 임의로 반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친구들을 도와줄 반장을 투표하여 뽑으며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F교사 7차 저널, 2022.07.03)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놀이나 활동 중 유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놀이를 지원하였다. 교사가 계획한 놀이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유아의 생각을 반영하여 놀이를 변경하였으며 교사는 유아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만 개입하며 유아에게 주도권을 주어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얼마 전에 창문에 그림 그리는 도구를 샀는데 창문이 아이들 키보다 너무 높아서 위험해 보여 자유 놀이시간에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다란 책상을 두면 어때요?”라고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넓은 너비의 책상을 두고 창문에 그

림 그리는 인원을 정해서 순서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하니 안전하게 창문에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 의견도 존중할 수 있었어요.

(G교사 면담, 2022.05.30)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게 놀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은 고민하다가 밑에 책상을 받친다거나 쿠션이나 방석을 깔아두며 안전하게 놀이해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사도 놀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그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 같아요.

(J교사 면담, 2022.05.17)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위험하게 놀이하는 유아를 보면 놀이를 중단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초임보육교사들은 유아 주도적으로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찾아 유아가 원하는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깥 놀이를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디서 바깥 놀이를 하고 싶은지 의견을 물어봐요. “숲길에 산책하러 갈 수도 있고 바깥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디서 바깥 놀이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각자 손을 들어 의견을 표현한 다음, 다수결에 따라 바깥 놀이 장소를 정해요.

(A교사 면담, 2022.05.25)

옥상 놀이터에서 놀이하고 나서 반에 들어가 자유 놀이를 하려 했는데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도 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자유 놀이하고 싶은 친구와 모래놀이터에서 놀이하고 싶은 친구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이야기 나누고 다수결에 따라 더 많이 손을 든 모래놀이터로 가서 놀이했어요.

(J교사 면담, 2022.05.17)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놀이 장소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장소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놀이 장소를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제가 보육실 구조를 바꾼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등원하더니 “어? 선생님 이거 혼자 다 바꾼 거예요?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보육 공간인데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보육 공간을 함께 구성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G교사 면담, 2022.05.30)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정리 시간을 정해요. “긴 바늘이 숫자 몇에 가면 정리를 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다수결에 따라 정리 시간을 정해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하는 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더 놀고 싶은 날엔 놀이시간을 길게 잡기도 하고 빨리 바깥 놀이하고 싶은 날엔 놀이시간을 짧게 잡더라고요.

(A교사 면담, 2022.05.25)

저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여러 방법을 제시해 주고 이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바깥 놀이시간에 모자를 가지고 온 아이가 모자에 달린 리본 때문에 짜증을 내더라고요. 놀이하기에 불편함만 주는 모자라 마음 같아선 그냥 벗게 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모자를 쓰지 않으면 너의 피부가 햇볕에 타서 따가울 순 있지만 대신 편하게 놀이를 할 수 있어. 네가 생각해보고 선택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햇볕 따가운 건 싫다고 그냥 모자를 쓰고 놀이하더라고요.

(J교사 면담, 2022.05.17)

00이가 공주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공주 드레스를 입어도 되지만 놀이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 불편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00이는 고민을 하더니 공주 드레스를 입지 않고 그냥 놀이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해준 거 같아 뿌듯했다.

(C교사 8차 저널, 2022.07.10)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일과 중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 일과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일과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 있었다. 사소한 것이라도 교사가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기보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직접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린이집 일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영유아 본인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하기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여 일과 속에서 실행하고 있었다. ‘권리’라는 어려운 내용을 아이들의 놀이 속에 적용함으로써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이야기해주시기도 하고 “00이는 선생님한테 너무 소중한” 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들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이야기 해줘요. 아이들 본인의 소중한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연스레 자신의 권리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H교사 면담, 2022.05.24)

영아는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주시기가 어려워 “사랑해” 가 들어간 노래에 아이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활동을 했어요. “선생님은 00이를 사랑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소중한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교사 면담, 2022.05.18)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일과 속에서 아이들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주며 자신의 소중한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번 달에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동요를 활용해서 권리존중 활동을 했는데 어디에 피든, 어떤 모습이든, 이름이 있든 없든 모두 사랑스러운 꽃이라는 내용을 담은 동요예요. 이 동요는 어떤 편견과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동요를 듣고 불러보며 동요에 담긴 뜻을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했어요.

(I교사 면담, 2022.05.08)

‘무지개 물고기’ 동화책을 함께 읽어보며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동권리 반대 동화인 ‘선녀와 나무꾼’ 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A교사 면담, 2022.05.25)

‘차별받지 않는 평범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라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적이 있어요. 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모두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J교사 면담, 2022.05.17)

아이들이 화난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감정 카드를 통해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 화난 감정도 소중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대신 화났다고 해서 물건을 던지거나 친구를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지만 말로 표현하는 건 소중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G교사 면담, 2022.05.30)

어린이집 내에 ‘아동권리 지킴이’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영유아 권리존중과 아동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놀이와 활동을 구성하고 준비해요. 영유아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원장님 의견에 따라 아이들이 아동학대 관련 영유아용 영상 시청, 인권/권리 카드 만들기, 인권 동화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인권 관련 동요 부르기,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숨은그림찾기, 인권 포스터 그리기 및 오마주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E교사 면담, 2022.05.18)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놀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권리와 관련된 동요나 동화, 영상을 보고 듣거나 감정 카드나 감정과 관련된 게임을 통해 다른 친구들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는 아동권리와 관련한 동화책을 들려주며 ‘권리’라는 단어를 인식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아동권리와 관련한 동화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권리’가 주인공인 동화책도 있어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권리라는 단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요.

(C교사 면담, 2022.05.14)

권리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 어려우므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너희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유 놀이시간에 같이 놀 친구를 짝지어 주지 않고, 어떤 놀이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아. 너희가 같이 놀이 하고 싶은 친구랑 자유롭게 너희가 하고 싶은 놀이 하고 있어. 이것도 권리야.”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어요.

(G교사 면담, 2022.05.30)

저는 평소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써요. 아이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내면 친구를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아이들의 생각을 교사가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친구들이나 교사의 생각이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어린이집 생활 중에 ‘존중’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J교사 면담, 2022.05.17)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권리’라는 단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거나 자주 사용하여 ‘권리’, ‘존중’이라는 단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일과 중에 ‘권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아이들이 자신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3) 가정과 연계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하기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내에서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었다. 부모와 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교육자료나 부모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1) 학부모와 소통하기

초임보육교사들은 가정에서도 영유아 권리존중이 실천될 수 있도록 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사와 부모가 함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00이가 저녁 간식으로 유부초밥이 나오자 먹기 싫다며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평소 00이 어머님과 이야기 나누었을 때 00이 어머님께서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주셔서 유부초밥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정리하자고 이야기하였다. 만약 어머니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도 억지로 먹여 달라고 하셨으면 00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F교사 2차 저널, 2022.05.18)

저희 원은 참관실이 있어서 부모님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교사가 아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도 하고요.

(B교사 면담, 2022.05.14)

00이의 부모님께서 00이가 주말에 집에서는 낮잠을 자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낮잠을 자지 않으면 00이의 발달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면 낮잠을 잘 자는지 방법을 공유해드렸어요. 나중에 00이 부모님께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방법대로 재우니 주말에도 낮잠을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H교사 면담, 2022.05.24)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학부모와 소통하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부모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사에게 질문하기도 하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해 함께 애쓰고 있었다.

(2) 학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지원하기

초임보육교사들은 부모에게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자료나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가정에서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지원하고 있었다.

작년에는 매달 부모통신문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하여 가정연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부모가 무심코 하는 말에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 ‘아동의 권리존중 양육법’, ‘눈에 보이지 않는 비눗방울:경계 존중 교육’ 등을 주제로 부모통신문을 발간해요. 그리고 통신문 하단에 부모님들이 코멘트를 달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주고받으며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했어요. 부모통신문 덕분에 여러 가지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정보도 알게 되고 그동안 아이에게 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E교사 면담, 2022.05.18)

가정으로 보내는 통신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많아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관련한 자료 배포하였고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금쪽같은 000’ 영상을 공유하였어

요. 통신문을 읽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은 많은데 ○○○ 같은 프로그램은 대부분 좋아하시고 보시더라고요.

(B교사 면담, 2022.05.14)

가정통신문으로 아동학대 홍보 팸플렛과 아동권리 현장 팸플렛을 배부한 적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동학대나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잘못된 훈육으로 상처받는 아이들-긍정적, 대안적 훈육방법’이라는 주제로 가정통신문을 발행한 적도 있고요.

(G교사 면담, 2022.05.30)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는 부모들이 권리존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관련 팸플렛이나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훈육방법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부모통신문을 매달 발행하여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였고 아이들의 권리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있었다.

2·4·6·10·12월에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권리존중 연간 계획을 하여 실제로 권리존중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이는 들어주는 만큼 자란다-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주세요!’, ‘아이마다 다른 기질과 특성을 알고 존중해요’, ‘아이를 설득시키는 10초 실천법, 감정 언어’, ‘우리 아이의 자기 조절력 키우기-느슨한 대결 펼치기’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H교사 면담, 2022.05.24)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부모 대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직접 강의자료를 가지고 강의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어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과잉보호로 발달권을 잃어가는 아이들-헬리콥터 부모’라는 주제로 아동 권리존중 관련 부모교육을 한 적도 있는데 부모들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만족하셨어요.

(C교사 면담, 2022.05.14)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아동권리와 관련한 주제로 부모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아동권리 존중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아동권리 관련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는 아동권리에 대해 이전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2.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통한 보람과 어려움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이나 교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보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었는데 어린이집 내 단체생활과 정해진 일과 운영,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행사, 특별활동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서의 보람과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장하는 아이들과 교사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모습과 교사 스스로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1) 주도적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

초임보육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

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이 교사를 믿고 따르며 좋아하는 모습이나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성취감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비가 와서 바깥 놀이를 가지 않으려 했는데 아이들이 산책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비가 오니 우비도 입어야 하고 장화도 신어야 해서 번거로워 잠깐 고민하긴 했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비를 입고 산책했다. 그때 00이가 “선생님이 우리 이야기 잘 들어줘서 좋아.” 라고 했는데 그때 보람을 많이 느꼈다. 내가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걸 아이들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G교사 2차 저널 - 2022.05.18)

그동안 내가 알아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미술 재료를 골라 가져다 두었는데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떤 미술 재료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아이들이 원하는 미술 재료를 가져다주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이 최고야.”, “선생님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좋아하였다.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진작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술 재료를 가져다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C교사 6차 저널, 2022.06.27)

위의 사례와 같이 영유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영유아 중심에서 일과를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초임보육교사들에게 영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는 것을 느끼며 교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처럼 자신을 좋아하는 영유아들의 모습을 보며 초임보육교사들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저의 업무가 많아지고 귀찮아지지만, 아이의 발달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아이들이 스스로 컵으로 물을 마시고 스스로 손가락과 포크를 사용하여 간식과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점차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아이들의 발달권을 존중하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뿌듯했어요.

(E교사 면담, 2022.05.18)

양치 시간에 많은 아이의 양치 지도를 혼자 해야 해서 정신이 없었다.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00이가 “선생님이 안 도와줘도 돼. 나 혼자 양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내가 양치를 급하게 해줬었는데 한 달 전부터 00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00이가 혼자 해봐” 라고 이야기하며 00이의 혼자 양치하고 싶은 의사를 존중해주었다. 요즘에 00이는 스스로 양치하며 양치를 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이젠 혼자서도 능숙하게 양치를 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성장한 00이의 모습을 보니 00이의 의견을 잘 존중해주어 00이가 혼자서도 양치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 거 같아 뿌듯했다.

(A교사 8차 저널, 2022.07.10)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발달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 중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자 다른 아이가 “그럼 가위 바위 보해서 정하는 게 어때?” 라고 하니 “좋아” 라고 이야기하며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여 갈등상황을 해결하더라고요. 교사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니 권리존중 하는 보람이 있었어요.

(A교사 면담, 2022.05.25)

바깥놀이 시간 전에 00이가 저에게 와서 “선생님은 오늘 정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옥상 놀이터 가고 싶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으니 00이가 “선생님 생각도 들어봐야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고 존중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니 기특하기도 하고 뿌듯했어요.

(J교사 면담, 2022.05.17)

위의 사례와 같이 존중받은 경험이 있는 영유아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발

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었다. 영유아들은 갈등상황 속에서 친구들의 생각을 존중하여 해결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생각을 존중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2) 영유아 권리존중에 발맞춰 가는 교사의 모습

초임보육교사들은 스스로의 모습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정신없는 보육현장 속에서 여유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영유아 권리존중을 인식하여 일과를 보낼 때 보람을 느끼고 있었으며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이해하고 신경 쓰고 있음을 느낄 때 뿌듯하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영유아 권리존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신없었는데 경력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영유아 권리존중 하는 상호작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처음보다는 여유 있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거 같아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을 느껴요.

(C교사 면담, 2022.05.14)

1년 차 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2년 차가 된 지금은 경력 선생님을 통해 보고 배우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익숙해진 거 같다. 각 상황마다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영유아 권리를 존중한 것인지 알고 있어 1년 차 때보다는 여유롭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거 같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고 뿌듯했다.

(H교사 7차 저널, 2022.07.02)

제가 면담을 하기 전에는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번 1차 면담을 하고 나서 제가 아이들과 한 상호작용을 되돌아보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잘 실천했는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면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성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H교사 면담, 2022.05.24)

이번 면담을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초임이라 일과를 안전하게 보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도 실천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스스로가 대견스러워요.

(B교사 면담, 2022.05.14)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 생활 초기에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차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알아가며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처럼 초임보육교사들은 여유롭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게 변화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에 비해 요즘 권리존중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요즘 방식에 맞는 보육을 하고 있구나’ 를 느껴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해 틈틈이 교육도 듣고 관련 책도 보며 공부하는데 저 스스로가 대견스럽더라고요.

(H교사 면담, 2022.05.24)

반에 한 남자아이가 머리카락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00이는 머리카락이 길어서 여자아이 같아.” 라고 이야기할 뻔했지만, 말하기 전 영유아를 차별하는 말이라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 같아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 권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J교사 면담, 2022.05.17)

요즘 권리존중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교사교육을 통해 권리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는데 교육을 듣고 나서 ‘아, 권리존중이 중요하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

니라, 배운 권리존중 상호작용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교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보육에 맞춰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중요한 권리존중에 맞는 보육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뿌듯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H교사 3차 저널, 2022.06.03)

위의 사례와 같이 최근 영유아 권리존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을 더욱 인식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과 속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을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2) 정해진 일과와 부담스러운 업무

초임보육교사들은 정해진 일과가 있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 외에도 교사의 업무도 많아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1) 정해진 일과로 인한 어려움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 하원하는 시간까지 정해진 일과로 운영된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존중하고 싶지만, 정해진 일과가 있어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여 일과를 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솔직히 아이들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마음껏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린이집은 정해진 일과가 있어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해도 점심시간이나 낮잠 시간이 되어 더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요구를 존중하기 어려워요. 정리 시간이 되면 더 놀고 싶다고 떼를 쓰는 아이가 있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 실컷 놀게 해주고 싶지만 정해진 일과가 있다

보니 00이에게 “지금은 정리할 시간이니 정리하자”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B교사 면담, 2022.06.20)

일과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놀이하고 정리하고 이동해야 하니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주기가 힘들어요. 저희 반 바깥 놀이시간이 끝나면 다른 반이 바깥 놀이할 시간이라 저희 반은 교실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바깥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하고 더 시간을 준다고 해도 고작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줄 수 있으니 ‘이런 정해진 일과 속에서 어떻게 영유아 권리존중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F교사 면담, 2022.06.16)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원하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하는데 정해진 일과가 있어 아이들의 놀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일 실천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는데 급식실이 모두가 동시에 사용하기엔 협소해요. 그래서 각 반마다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한된 점심시간 안에 빨리 밥을 먹어야 해서 아이들에게 “빨리 먹자.”,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이렇게 느리게 먹으면 안 돼.” 등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I교사 면담, 2022.07.02)

00이가 늦게 간식을 먹기 시작해서 00이가 먹는 도중에 간식 시간이 끝났다. 조리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00이의 간식을 정리하는데 00이가 “저 이거 더 먹고 싶어요. 더 먹으래요.”하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00아, 지금은 간식 정리 시간이야. 다음에는 부지런히 움직여서 간식 다 먹어.”라고 말하고 간식을 정리했다. 정리하는 내내 00이는 더 먹고 싶다고 말했고 그 말이 자꾸 맴돌았다.

(C교사 7차 저널, 2022.07.02)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정해져 있는 급·간식 시간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간식

시간이 끝나게 되거나 다음 반이 급식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일과대로 따라야 하는 어린이집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급·간식을 더 먹고 싶은 경우 아이들의 생각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고 천천히 급·간식을 먹는 아이들의 경우 급하게 급·간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아이들이 놀이하다가 오후 특별활동 시간이 되면 하던 놀이를 정리하고 오후 특별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럴 때 충분히 놀이하지 못한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더 놀고 싶어서 아쉬워해요.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려면 오후 특별활동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놀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에 오후 특별활동을 하러 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정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쁘게 놀잇감을 정리하고 특별활동실로 가다 보니 아이들 마음을 헤아려줄 여유도 없는 거 같아요.

(A교사 면담, 2022.07.13)

지금 생각해보면 특별활동 시간도 영유아 권리존중을 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특별활동 시간이 되어 놀이를 더 하고 싶어도 특별활동을 하러 가야 해서 속상해하는 아이도 있고 특별활동을 초반에 계획할 때 어떤 특별활동을 원하는지 아이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께 설문지를 돌려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영유아 권리존중을 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J교사 면담, 2022.06.21)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정해진 특별활동 시간에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특별활동 시간이 되면 영유아들은 하던 놀이를 중단하고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놀이하고 싶은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특별활동 시간이 다가오면 급하게 하던 놀이를 정리하게 하면서 아이들의 욕구를 무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2) 부담스러운 교사 업무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데 영유아 보육 이외의 업무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너무 많은 서류 업무로 인해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체력소모가 커서 정작 보육시간에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할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연장 보육시간에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로 보육을 하게 되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솔직히 서류 업무가 많은데 교사가 서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낮잠 시간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서류 업무를 하기 위해 낮잠 시간에 아이들이 자기 싫어하면 눈을 가려 억지로 재우기도 하고 중간에 깨어나도 못 본 척하게 되는 거 같아요. 교사가 근무시간 중 끝내기 힘들 정도로 과한 서류 업무를 주고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요구하니 제대로 된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힘든 거 같아요.

(B교사 면담, 2022.06.20)

제가 아직 초임보육교사라 서류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집까지 서류 업무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력 보육교사들이 그렇게 하면 교사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초임보육교사라 서류 업무 속도가 느려 집에 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체력적으로 지쳐요.

(D교사 면담, 2022.06.04)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서류 업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낮잠 시간뿐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낮잠 시간에 잠에서 깨는 아이가 있어도 밀린 서류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므로 못 본 척하게 되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초임보육교사들은 서류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려 집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 체력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하였다.

연장 보육시간에 영유아 권리존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우선 연장 보육까지 들어가면 훨씬 오랜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야 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연령이 혼합돼서 정신없어요. 교사가 지친 상태에서 연장 보육을 들어가니 아이들의 의견을 더 못 들은 척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E교사 면담, 2022.06.28)

연장 보육시간에 다른 교사들은 서류 업무를 해야 해서 최소인원의 교사만 남아 있게 되어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좋지 않아 영유아 권리존중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들의 놀이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하원할 때 아이들이 방치될 때가 많아요.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인사해야 하니까 놀이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와 인사하고 이야기하느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거 같아요.

(H교사 면담, 2022.06.26)

연장 보육시간에 계속해서 학급이 통합돼요. 아이가 줄어들면 옆 학급과 통합하고 또 줄어들면 다른 학급과 통합하여 계속해서 반이 통합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줄어들 때마다 하던 놀이를 정리하고 다른 반으로 가야 하니까요. 어차피 곧 정리해야 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놀잇감을 다 꺼내지 못하게 하고 너무 어지럽히거나 많은 교구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 같아요. 결국 아이들은 단순한 놀이만 하게 돼요.

(A교사 면담, 2022. 07.13)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연장 보육시간에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연장 보육시간까지 아이들과 보내야 하니 교사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하원 준비로 인해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만들기 활동을 하는데 카네이션 만들기 활동보다 자신들의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하나씩 들고 가야 하니 그런 아이들에게 카네이션을 완성하기 전까지 하고 싶은 놀이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요.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어떤 카네이션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원장님께 피드백 받다 보면 야근도 하게 되고 업무가 2배 되는 거 같아요.

(F교사 면담, 2022.06.16)

행사할 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업무가 진짜 많아요.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야근도 잦고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서 영유아 권리존중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난번에 동극행사를 하는데 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참여하게 하였고 저도 행사준비로 피곤하니까 아이들의 요구나 생각을 존중해주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권리존중이 되지 않고 교사 업무가 느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G교사 면담, 2022.06.22)

위의 사례와 같이 학부모에게 보여주기식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초임보육교사들은 행사준비로 인한 잦은 야근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지쳐 영유아 권리존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초임보육교사들은 행사에 집중하다 보니 영유아 권리존중을 제대로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3)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는다고 하였다. 교육을 통해 관련 이론을 배워도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여러 가지 권리가 충돌할 경우 어떤 권리를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른 영유아 권리존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을까 두려워 안전과 영유아 권리존

중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낀다고 하였다.

(1) 이상적이기만 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초임보육교사들은 대학 혹은 교사교육을 통해 배운 영유아 권리존중 내용은 이상적이기만 하고 보육현장의 실재를 반영하지 못한 거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배워도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론상으로 낮잠 도중 깬 아이가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용한 놀이를 하도록 지원해도 결국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이 잠을 방해하게 되기도 하고 놀잇감으로 인해 다른 아이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냥 누워서 쉬라고 이야기해요. 이론을 따르기엔 다른 아이의 낮잠 방해, 다른 자는 아이의 안전문제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론과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B교사 면담, 2022.06.20)

제가 대학 시절 이론으로 영유아 권리존중을 배울 땐, “00아, 밥 한 번 더 먹어볼까?”, “00아, 놀잇감 정리해볼까?” 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며 아동 중심의 상호작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 아이들은 싫다고만 대답하고 일과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의견을 묻기보다 “바깥 놀이 나가야 하니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등의 말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A교사 면담, 2022.07.13)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마다 개별 낮잠 시간이 달라 먼저 일어난 영유아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결국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시끄러워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배운 이론에 따라 교사 지시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영유아

중심의 상호작용을 했을 때 영유아들이 그냥 무시하거나 싫다고만 대답하여 결국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론과 달리 보육현장은 정신없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때 생각하면서 하기보다는 특 내뻗게 되는 게 많아요. 바깥 놀이를 하러 갈 때, 00이가 제일 앞에 서서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제일 앞자리는 선생님 자리야.” 하면서 제일 앞에 서서 간 적이 있어요. 정신없으니 지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I교사 면담, 2022.07.02)

손을 씻을 때 물로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만지며 물을 튀기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물로 장난치지 말고 손 빨리 씻고 들어오세요.” 하면서 물을 잠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왜 물로 장난치면 안 되는지 설명할 시간도 없고 빨리 교실로 가서 점심 먹을 준비해야 하니까 아이들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작용 하기보다는 그냥 지시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 같아요.

(C교사 면담, 2022.06.17)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내용이 정신없는 보육현장의 모습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보육현장에서는 인해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아닌, 교사 지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아이의 권리를 존중해주면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밥을 골고루 먹지 않으려 한다거나, 손 씻기를 제대로 안 하거나, 양치를 거부하거나 등 이럴 때 어디에 더 중요도를 뒤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아시기에 기본생활 습관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아동 권리존중이 중요해지면서 어느 정도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I교사 면담, 2022.07.02)

낮잠 시간에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서 원하는 자리에 낮잠 매트 깔아준 적이 있어요. 그

런데 오히려 낮잠을 안 자고 옆 아이와 장난을 치더라고요. 권리를 존중해주니까 더 멋대로 행동하고 버릇없어지는 거 같아 고민이에요. 교사도 처음에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었지만 그럴수록 더 멋대로 행동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점차 아이들 권리존중을 하지 않게 돼요.

(C교사 면담, 2022.06.17)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낮잠지도나 식습관지도와 같은 기본 생활습관지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영유아 권리존중 내용을 따르다 보면, 아이들의 기본생활습관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과 이 시기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00이가 올면서 등원을 하였는데 달래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단체생활로 인해 우는 00이를 오래 기다려줄 수 없고 00이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영아들의 요구 및 보육을 해주지 못하게 되어 속상했다. 이렇듯 다수의 권리와 소수의 권리가 충돌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권리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B교사 4차 저널, 2022.06.12)

권리존중 관련한 교사교육을 받았지만, 한 명의 권리를 존중해주면 다른 아이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권리존중은 배워도 어렵고 딜레마인 거 같아요. 온전히 권리를 존중해주는 건 힘들니까 다른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존중해주려고 하곤 있어요.

(H교사 면담, 2022.06.26)

위의 사례와 같이 이론대로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기엔 한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면 다른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받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싶지만 결국 한 아이

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순간 다른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2)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

초임보육교사들은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권리존중 인식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개인의 권리존중 인식 차이에 따라 다르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였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경력 선생님 혹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기준도 달라서 어느 기준에 맞춰 권리존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권리존중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저는 아이의 권리를 존중해줬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B교사 면담, 2022.06.20)

권리존중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모호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100까지 하는 게 권리존중인데 원장님이 생각할 땐 70까지만 해도 권리존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집 내에서 공동체 생활이니 교사들이 함께 권리존중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각자 생각하는 권리존중의 정도가 다르니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교사에게는 권리존중이고 다른 교사에게는 권리존중이 아닐 수 있더라고요.

(H교사 면담, 2022.06.26)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개개인마다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영유아 권리존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사나 부모에게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 모호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이처럼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의 개념이 경력이 쌓이면서 계속 바뀌는 거 같아요. 제가 1년 차 때는 아이가 놀이를 안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안 할 수 있게 내버려 뒀는데 2년 차가 된 지금 ‘이게 과연 권리존중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진정한 권리존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몇 번 권유하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요. 저 혼자도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 어려운 거 같아요.

(G교사 면담, 2022.06.22)

1년 차 땐 바깥 놀이를 어디로 나가고 싶은지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 게 영유아 권리존중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2년 차가 되면서 바깥 놀이를 어디로 나가고 싶은지 물어보고 아이들의 의견대로 바깥 놀이를 나가는 것도 영유아 권리존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실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인식이 변하고 있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요.

(J교사 면담, 2022.06.21)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1년 차 교사일 때 권리존중이라고 생각한 상호작용이 교사 경험이 쌓여가면서 때엔 권리침해라는 생각이 들며 개인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인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임보육교사들은 스스로도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인식 변화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3) 안전문제 두려움으로 인한 어려움

초임보육교사들은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교사로서 무능하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안전문제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몰두하다

보니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오늘은 연차인 선생님들이 많아 혹시나 일어날 안전사고를 대비해 실내놀이터 ‘신나는 방’ 안에서만 놀 수 있도록 지도했다. 그때 00이가 “왜 신나는 방에서만 놀아야 해?” 라고 궁금해하며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지만, 00이에게 더 단호하게 이야기한 후 ‘신나는 방’ 으로 들어오게 했다. 00이의 시무룩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평소처럼 넓은 곳에서 놀 수 있도록 하기에는 교사 3명으론 너무 부족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I교사 6차 저널, 2022.06.25)

초임보육교사라 권리존중보다는 안전에 더욱 중요도를 느끼고 신경 쓰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하고 안정적으로 있어야 교사가 능력 있어 보이니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해야 하니 과격한 놀이를 제한하며 권리를 침해하게 되더라고요. (중략) 안전 때문에 놀이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통제하는 느낌이에요.

(H교사 면담, 2022.06.26)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을까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보다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신이 능력 있는 교사로 보이는 것에 더욱 중요도를 두고 있었다.

오늘 놀이 중 00이가 블록을 자기 키보다 높게 쌓고 좋아하였는데 블록을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으려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쌓아야 하고 그 블록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 놀이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략) 그리고 구석진 공간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구석진 공간은 CCTV도 없고 내가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그곳에서 놀이하지 못하게 하였다. 안전문제로 인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대로 존중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 같아 속상했다.

(F교사 3차 저널, 2022.05.23.)

막대기로 전쟁놀이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놀이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데 안전문제 때문에 못 하게 해요. 처음엔 함께 규칙을 정해서 자기 팔보다 길지 않은 막대기로 친구가 없는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규칙 안 지키면 못 놀아.” 하고 막대기를 빼앗게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엔 많은 아이가 있고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쉬워 다 허용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G교사 면담, 2022.06.22)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들의 놀이를 자유롭게 허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안전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의 자유롭게 놀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4) 초보교사의 미숙함

초임보육교사들은 생존단계에 있는 사회초년생으로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숙한 점이 많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적응문제 및 업무 미숙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 생존이 우선인 교사

초임보육교사들은 생존단계의 교사로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적응과 생존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업무 파악하기 바빠 여유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을 신경 쓰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었다.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말 큰 어려움인 거 같아요. 저는 초임보육교사다 보니 업무를 익히느라 속도도 느리고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서류작업만 생각하다 보니 영유아 권리존중을 생각할 시간도, 오늘 어린이집 내에서 나의 행동을 반성할 시간도 없어요. 뭔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오늘 하루 영유아 권리존중을 잘 실천했는지, 실천하지 못한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할 시간이 될 텐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 저는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 없이 제자리걸음이에요.

(B교사 면담, 2022.06.20)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주어진 업무를 익히고 많은 시간에 걸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보다는 업무를 기간 내에 해내는 것에 더욱 신경 쓰고 있었다.

학부 때 권리존중 관련 수업을 들으면 ‘아이들 권리존중 해줘야지’, ‘아이들 의견을 반영해서 놀이 지원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저의 교사 생활을 꿈꾸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 여유도 없고 적응하기 바빠 ‘오늘 하루만 잘 넘기자’, ‘오늘만 버티자.’ 라고 생각하며 아이들 권리존중보다는 제가 어린이집 제대로 적응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에 더욱 중점을 뒀요.

(C교사 면담, 2022.06.17)

처음에 입사했을 때 현장 적응하기도 바쁘고 너무 정신도 없고 다른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영유아 권리존중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거 같아요. 교사용 화장실 칸에 들어가면 문에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글이 적혀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상호작용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항상 화장실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생각한 것 같네요. 어린이집에서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런 거 같아요.

(E교사 면담, 2022.06.28)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생존단계의 교사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생각할 시간 없이 어린이집 환경에 적응하고 버티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어린이집 적응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이직과 퇴사를 고민하고 있고 제가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등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당장 제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이대로 교사라는 직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점이 드니 아이들 권리존중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며 어린이집에서 한숨만 쉬고 있어요.

(C교사 면담, 2022.06.17)

어린이집 적응과 첫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출근 생각만 하면 너무 우울해요. 제 우울한 감정이 너무 커서 아이들과 놀이할 때 명을 때리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경우가 많아요. 가끔 아이들 놀이를 보다가 울컥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어린이집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니 영유아 권리존중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I교사 면담, 2022.07.02)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한 채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이 교사라는 직업과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스스로가 교사라는 직업에 확신이 없고 중도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2)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이해 부족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과 관련하여 경험이 적고 미숙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을 하지 못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디까지 영유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놀이시간에 서로 가지고 놀고 싶은 놀잇감이 같아 다투는 아이가 있었는데 함께 가지고 놀자고 하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같이 가지고 놀지 않으면 너희 둘 다 가지고 놀 수 없어” 하고 놀잇감을 뺐었던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두 명의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초임보육교사라 놀이 중 갈등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두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을지 몰라 어려워요.

(C교사 면담, 2022.06.17)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00이가 화장실에서 오면 화장실 가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둘이서 화장실 가서 장난칠까 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영유아의 자연스러운 배변 욕구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메이트 선생님께 들었어요. 이런 사소한 말도 영유아 권리침해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강압적으로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드럽게 말해도 영유아 권리침해일 줄은 몰랐어요.

(F교사 면담, 2022.06.16)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를 침해하는 상호작용과 행동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영유아 권리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5) 부딪치는 인간관계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첫 사회생활을 하며 어린이집 내 다양한 인간관계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초임보육교사들은 학부모, 원장, 동료교사

등 다양한 인간관계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1) 학부모의 과한 요구와 불신

초임보육교사들은 학부모의 과한 요구와 불신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학부모의 과한 요구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지 못하고 학부모의 요구대로 보육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 학부모의 불신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려 노력할 의욕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로 인해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00이가 오전 7시에 등원해서 점심을 먹고 양치 시간이 되면 피곤해해요. 너무 피곤해서 양치하기 싫다며 울며 소리 지르기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교사에게 “저리 가”, “싫어, 하지 마” 등의 말을 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양치에 예민하셔서 어떻게든 양치하길 원하세요. 한번은 아이가 너무 거부해서 양치하지 않고 낮잠을 잔 적이 있는데 왜 그랬냐며 저에게 화내시더라고요. 그 후로 어쩔 수 없이 00이를 억지로 붙잡고 제가 양치를 해주고 있는데 교사도 지치고 00이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I교사 면담, 2022.07.02)

가끔 부모님들께서 “점심시간에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침 안 먹고 왔는데 오전 간식 꼭 먹게 해주세요.”, “밤에 자꾸 늦게 자는데 낮잠 오래 안 자게 해주세요.” 등의 요구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부모님들의 요구로 인해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B교사 면담, 2022.06.20)

위의 사례와 같이 아이들의 요구를 존중하기보다는 학부모의 요구를 더 우선시하여 보육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요구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학부모가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침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다.

00이가 바깥 놀이시간에 좋아하던 물놀이를 하지 않아 “00아, 왜 물놀이 안 하고 있어?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물놀이 하지 말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젖은 옷과 양말을 계속해서 세탁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결국 00이는 물놀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더라고요. 이것도 아동 권리침해인데 어머니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물놀이하게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권리침해 상황을 방관했어요.

(G교사 면담, 2022.06.22)

바깥 놀이시간에 00이가 가디건을 입고 뛰어다녀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 보여서 00이에게 너무 더우면 겉옷 벗으면 된다고 이야기 해주었더니 “엄마가 감기 걸린다고 절대 벗지 말래요. 벗으면 혼난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여름에 가디건을 못 벗게 하는 것도 권리침해지만 벗으면 혼난다고 한 상호작용도 권리침해란 생각이 들었어요.

(A교사 면담, 2022.07.13)

위의 사례와 같이 학부모가 영유아 권리존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학부모와 가정이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실행되어야 하지만 학부모가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요구를 하게 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 상담 때, 학부모님과 아이의 식습관 지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 “집에서는 잘 먹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왜 잘 안 먹을까요?”, “선생님이 지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등 저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솔직히 집에서는 원하는 반찬을 해주고 원하는 음식만 제공해주니까 아이들이 잘 먹죠. 그리고 아이들을 따라다

니면서 밥을 먹여줄 수 있고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반찬이 골고루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줄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바라시고 무능력한 교사로 보는 거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C교사 면담, 2022.06.17)

놀이시간에 한 아이가 “엄마가 선생님이 안 때리냐고 물어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조금 속이 상했어요. 물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아이를 통해 들으니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내가 초임보육교사라 저렇게 물어보시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학부모님께서 아이 안 키워본 선생님이 뭘 알겠냐고 생각하실 거 같기도 하고 초임보육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조금 위축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등·하원 시간에 학부모님들이 계실 땐 영유아 권리존중을 하는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데 괜히 더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학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J교사 면담, 2022.06.21)

위의 사례와 같이 학부모의 불신으로 인해 초임보육교사들은 속상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자신감을 잃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자신 있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의 권리

초임보육교사들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지 않음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함에 우울함을 느끼고 있었다. 스트레스와 우울함으로 인해 영유아의 권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

옆 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원장님께서 옆 반 교사를 향해 “야!”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신 적이 있어요. 원장님이 먼저 교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교사도 “아, 나도 존중받고 있으니 당연히 아이들도 존중받아야 해” 라는 마음이 드는데 교사조차 원장님께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C교사 면담, 2022.06.17)

행사를 준비할 때 피피티를 만들어야 하는 업무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서 주임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행사 직전에 본 다음 뒤늦게 수정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당장 내일이 행사니까 결국 저는 피피티 수정으로 인해 늦게까지 야근했어요. 야근한다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니까 짜증도 나고 몸이 피곤해서 다음날 아이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들어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제 몸이 힘들니까 아이들의 권리존중은 생각도 안 하고 제 몸 힘든 것만 생각하게 돼요.

(I교사 면담, 2022.07.02)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호칭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스스로 하대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나 근무시간 이외의 연장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근무환경 등을 경험하면서 교사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 본인도 존중받지 못하니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메이트 선생님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서 계획하면 항상 반대하시고 존중하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여 계획한 것인데 이를 존중해주지 않으시고 메이트 선생님이 원하는 활동을 하길 바라시더라고요.

(C교사 면담, 2022.06.17)

제가 준비한 놀이를 보고 혼내시는 경력 선생님이 계셨어요. 조언을 주시는 건 좋지만 저를 존중하여 친절하게 말씀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너무 힘들어요. 저도 같은 교사니까 아랫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교사 면담, 2022.07.13)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영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을 실행하고자 할 때, 경력교사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다른 활동으로 바뀌어 진행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어 힘들다고 하였다.

(3) 경력교사의 눈치 보기

초임보육교사들은 자신보다 경력교사의 눈치를 보느라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력교사와 성향이나 성격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으며, 경력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도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었다.

제가 초임보육교사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 고경력 선생님이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상호작용을 해도 그냥 지켜보기만 해요. 속으로 ‘저런 교사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제가 나서서 이건 권리침해 아니냐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고경력 선생님이 “유치원 가면 다 해야 해”, “다시 걸어와” 등 권리를 침해하는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선생님, 이건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 아닌가요?” 라고 말을 못 했어요.

(A교사 면담, 2022.07.13)

초임보육교사다 보니 경력교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눈치를 주시지 않아도 괜히 주눅 들고 눈치 보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해진 일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늦으면 괜히 제 역량 부족한 거 같고 제대로 아이들을 이끌지 못해서 일과를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더 조금하게 일과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 같아요. 융통성 없이 정해진 일과를 따르려다 보니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F교사 면담, 2022.06.16)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경력교사의 눈치를 보느라 경력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상호작용을 해도 모른 척하고 있었으며 경력교사에게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정해진 일과를 보내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다.

제가 아직 초임시기라 다른 선생님들과 친하지도 않고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요. 제가 현장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께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방법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영유아 권리존중을 한 행동인지 여쭙보고 싶은데 아직 불편하고 어려워서 쉽지 않더라고요.

(D교사 면담, 2022.06.04)

영유아 권리존중을 해야 할지, 아니면 훈육을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에 경력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지만 어색하고 불편하고 괜히 혼나기만 할까 봐 묻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도 많아요. 초반에 제가 잘하질 못해서 경력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주눅 들어서 먼저 여쭙보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자주 혼나기만 하고 경력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 아이들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도 부정적 영향이 가게 되는 거 같아 미안해요.

(I교사 면담, 2022.07.02)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경력 교사에게 영유아 권리존중이 어려운 상황이나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방법 등을 물어보고 싶지만, 불편하여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초임보육교사들은 현장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었다.

3.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며 어려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외적 지원 및 효율적인 교사교육을 요구하

였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라 다른 경력보육교사에 비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하길 바라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한 지원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권리를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보육 외 업무를 줄여 교사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 지원해주길 이야기하였다.

(1)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실 내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일과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고 충분한 놀잇감이 없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대로 존중해주지 못해 이를 외적으로 지원해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적절했으면 좋겠어요. 만 2세 기준으로 14명을 교사 2명이 보육하니 너무 정신도 없고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척하게 되고요. (중략)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적절하면 아이들의 안전문제 걱정 없이 충분한 놀잇감을 제공해줄 수 있

을 테고 교사도 훨씬 여유롭고 체력이 덜 힘드니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B교사 면담, 2022.06.20)

영아 대 교사 비율에 영아 수가 너무 많아서 영유아 권리존중을 제대로 신경 쓰기에 너무 정신도 없고 힘들어요. 솔직히 적절한 교사 대 영아 비율이 영유아 권리존중을 향한 첫 발 걸음이라 생각해요. 교사가 혼자서 영아 5명을 돌봐야 하니까 한 명 한 명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기가 힘들고 한 명이 물어버리면 나머지 4명의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방임하게 되는 거니까요. 조금 더 적절하게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E교사 면담, 2022.06.28)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못한 거 같아요. 개개인 유아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싶어도 아이는 많고 교사는 한 명이니까 안전문제에 더 신경을 쓰게 돼서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보조교사라도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감 놀이를 하고 싶어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혼자 물감 놀이를 지원할 자신이 없어서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거든요. 보조교사라도 있었으면 물감 놀이를 하고 싶다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거 같아요.

(G교사 면담, 2022.06.22)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아 정신없이 일과를 보내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 무시하게 되거나 존중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지켜지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요구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을 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놀잇감이 부족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이 다양하고 충분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으면 해요.

(A교사 면담, 2022.07.13)

아이들이 원하는 놀잇감을 사주고 싶고 많은 양을 제공해주어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존중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께서 허락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존중해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놀잇감이 제공되면 좋을 거 같아요.

(C교사 면담, 2022.06.17)

위의 사례와 같이 놀잇감이 부족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충분한 놀잇감이 갖추어진 보육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있길 요구하고 있었다.

(2)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권리 증진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교사 권리 증진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보육교사의 복지 및 급여를 높이고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하길 요구하고 있었다. 교사 스스로가 권리를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야 영유아 권리존중도 더욱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교사가 체력이 있으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하지만, 교사가 힘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하루에 9시-4시까지 딱 7시간 정도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E교사 면담, 2022.06.28)

교사가 교실 내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요. 교사가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어 지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권리존중 보육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오전 당직, 오후 당직이 있는 날에는 10시간 넘는 시간을 교실 내에서 보내기도 하고요. 보조교사 채용을 많이 늘려서 교사가 교실 내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수업 준비나 서류 업무 할 시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A교사 면담, 2022. 07.13)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보조교사 채용을 늘리길 요구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 내에서 보내며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므로, 체력적 소모가 커서 제대로 된 영유아 권리존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하였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줄여 체력적으로 덜 힘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처럼 복지를 제공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면 많은 교사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보육하니 아이들의 권리를 더욱 잘 존중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보육교사 월급을 올려주는 것 등이요. 보육교사 월급만 높았어도 받는 돈이 많으니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상호작용할 거 같아요.

(I교사 면담, 2022.07.02)

상여금 제도가 있어서 보육교사의 사기를 높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교사의 실적, 수업 등을 평가해서 상여금을 주면 교사도 의욕과 능률이 생겨서 더욱 열심히 아이들이 이야기를 존중해주며 일과를 보낼 거 같아요. ‘교사는 당연히 열정페이로 일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항상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교사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에 맞는 처우개선과 복지와 급여 인상을 해주면 서 그에 맞는 역할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교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요.

(H교사 면담, 2022.06.26)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의 급여가 인상되어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더욱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보육교사의 근무량에 맞는 급여를 주고 교사의 능력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제공하면서

교사의 근무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사의 권리부터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참는 걸 당연시 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 교사가 있는 건 맞지만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 월급이나 복지 등도 신경 써주면 좋겠고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야근 수당도 제대로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교사의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으면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요구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교사의 권리부터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D교사 면담, 2022.06.04)

교사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 권리존중이 먼저 이루어져야 영유아 권리존중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초임보육교사는 처음에 적응하기 너무 힘든데 권리존중도 제대로 못 받으니 영유아 권리존중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려면 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복지까지 당장 바라진 않고 기본적인 것부터 보장해주고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E교사 면담, 2022.06.28)

원장님께서 교사의 자율권을 많이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원장님께서 경력이 많으시니, 조언해 주시는 건 좋지만, 그 조언을 듣고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건 교사의 몫이에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들이 한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원장님도 교사들을 존중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G교사 면담, 2022.06.22)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반에 들어오시고 놀이상황을 살펴보시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눈치 보여서 오히려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못 하겠어요.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원장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놀이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어떻게든 함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돼요. 물론 원장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교사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매일 반에 들어오시는 것보단,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한 거 같아요.

(J교사, 2022.06.21)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의 권리도 존중해주면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초과 근무를 해도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월급이나 복지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며 교사의 권리를 존중 해주지 않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아이들의 권리만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고 어린이집 밖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산책도 하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라도 나갈 수 있는데 저희는 점심시간에도 못 나가고 점심 식사 지도를 하고 있으니깐요.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 못 받고 낮잠 시간엔 일지를 쓰거나 알림장을 쓰고 있고요.

(A교사 면담, 2022. 07.13)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일해요. 휴게시간에는 어린이집 밖을 나가서 아예 일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제대로 온전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쉬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반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니면 어린이집 내에 교사 휴게실을 만들어서 침대나 안마기기를 제공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정말 허울뿐인 휴게시간이에요.

(C교사 면담, 2022.06.17)

위의 사례와 같이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허울뿐인 휴게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사가 여유를 가지며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3) 불필요한 보육 이외의 업무 개선

초임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가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보육뿐만 아니라, 행사준비, 부모 간담회, 서류 업무 등 너무 많은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불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업무를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안 그래도 서류작업 등이 처음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서류 업무량도 많아서 결국 집에 서류를 들고 가서 하는 경우가 생겨요. (중략) 불필요한 서류 업무는 줄여 줬으면 좋겠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한 분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 교사를 어린이집 내에 필수로 1명 뒤에 한다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C교사 면담, 2022.06.17)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유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지가 필요한 서류긴 하지만 매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굳이 매일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지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썼으면 좋겠어요.

(F교사 면담, 2022.06.16)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보육뿐만 아니라 서류 업무도 많아 보육에 집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불필요한 서류 업무가 많은데 이를 간소화하거나 행정 담당 선생님을 별도로 채용하여 아이들 보육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요구하였다.

제가 이번에 교재교구 관리 업무, 화장실 업무, 소화기 관리 업무 등 보육과 서류작업 외에도 어린이집 내에서 많은 업무를 맡았어요. 이렇게 서류작업과 보육뿐만 아니라, 잡다한 업무가 많으니 지치게 되고 영유아 권리존중에 신경 쓸 힘이 없더라고요. (중략) 어린이집 교재교구 소독이나 교실 청소는 청소 선생님을 따로 고용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는 소방 업체에

말기면 좋을 거 같아요. 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C교사 면담, 2022.06.17)

위의 사례와 같이 보육 외에 업무가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소독 및 청소 업무, 소화기 관리 업무, 교재교구 관리 업무 등 잡다한 업무가 많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보육교사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거나 추가 인원을 채용하길 요구하였다.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효율적인 교사교육 지원

초임보육교사들은 그동안 수강한 교사교육이 효율적이지 않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효율적인 교사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진행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신없고 바쁜 일과 속에서 보육교사가 교사교육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아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 홍보를 주기적으로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1)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 홍보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적응과 정신없이 진행되는 일과로 인해 교사교육 찾아볼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교사교육을 듣고 싶지만 찾아볼 여유가 없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바쁜 보육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보육교사들이 쉽게 교사교육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으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사는 업무가 너무 많아 별도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교육이 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어린이집에 공문이나 안내장, 팸플릿을 보내서 홍보를 해주거나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공유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B교사 면담, 2022.06.20)

사실 제가 초임보육교사라 그런지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교사교육이 있는지 찾아볼 겨를이 없어요. 영유아 권리존중보다 일과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내는지,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등에 더 신경을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을 따로 찾아보지 않는데 어린이집에 팸플릿을 보내주거나 교사에게 문자를 보내주면 정신없는 중에도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관련 교육이 있다는 걸 아니 들어볼 거 같아요.

(D교사 면담, 2022.06.04)

위의 사례와 같이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이 있으면 어린이집으로 공문이나 홍보자료를 보내주거나 교사에게 문자를 보내주면 좋을 거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 일정이나 자료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올려주길 요구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육자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본인이 찾아보지 않으면 접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자료를 어린이집에 주기적으로 발송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에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자료가 발송되면, 바쁘게 일과를 보내다가도 그 자료를 보고 ‘아, 권리존중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 거 같아요.

(E교사 면담, 2022.06.28)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자료를 어린이집에서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영유아 권리존중이 중요해진 만큼 관련 자료를 어린이집에 1부만 발송해주면 다른 교사들과 함께 참고하여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거 같아요.

(C교사 면담, 2022.06.17)

위의 사례와 같이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어린이집에 주기적으로 발송해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관련 교육자료가 발송되면 빠르게 일과를 보내다가도 한 번씩 그 자료를 보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인식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였다.

(2) 자유롭게 소통하는 교사교육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론 중심의 교사교육이 아닌 세미나 형식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교사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사례를 접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사교육을 하길 요구하고 있었다.

교사교육을 할 때,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사소한 것도 사례를 통해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도 교육내용에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해도 쉽고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E교사 면담, 2022.06.28)

너무 뻔한 사례 말고 진짜 현장에서 자주 있을 법한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대부분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은 내용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뻔한 사례가 아닌 다른 교사교육에서 접하지 못한 보육현장에서 자주 겪을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을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A교사 면담, 2022.07.1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와 흔하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이 진행되길 요구하고 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권리존

중 관련 교사교육들은 내용이 비슷하고 일반적인 사례들이 많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구체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로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었다.

교사에게 주어진 업무가 많아 온라인 교사교육이 있으면 그냥 틀어놓게 되더라고요. 주제만 보면 내가 그동안 궁금했고 들어보고 싶던 교육이라 신청하는데 막상 들을 땐 일도 많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틀어놓고 서류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 교육이 도움도 되지 않고 부질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그냥 틀어만 두고 각자 업무 하더라고요. 저는 교사교육이 점심 먹고 조기 퇴근해서 업무 시간 내에 듣는 대면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현재 대부분의 교육이 주말이 이루어지니 다들 듣기 싫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 대충 듣게 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 같아요.

(C교사 면담, 2022.06.17)

그러다 보니 얼마 전 권리존중 관련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제가 너무 지치고 할 일이 많으니 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교육이 저에게 도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서류작업을 방해하는 방해꾼 같았어요. 교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 교육을 열심히 들을 여유도 없고 이렇게 형식적인 교육이 되더라고요.

(I교사 면담, 2022.07.02)

위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그냥 틀어놓고 다른 업무를 하게 되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온라인 교육 대신 오프라인으로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을 진행하고 주말이 아닌 업무 시간 내에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하였다.

강의식의 교사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강의식 교사교육은 이미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권리존중을 인식하는 정도까지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교육을 들으면서 (중략)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권리존중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중요도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정신없어 잊고 실천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강의식 교육보다는 교사들끼리 세미나를 개최해서 애매한 상황에서의 아

동권리존중 방법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H교사 면담, 2022.06.26)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이 나와서 영유아 권리존중 사례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평소에 영유아 권리존중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보육교사들과 영유아 권리존중과 훈육 사이에 고민되는 상황이나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기에 모호한 상황 등을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며 현장에 오래 계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교육받고 싶어요.

(F교사 면담, 2022.06.16)

위의 사례와 같이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교사교육이 진행되길 요구하고 있었다. 강의식 교사교육이 아닌 각자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영유아 권리존중하기 어려운 사례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사교육을 하면 좋을 거 같다고 하였다.

(3)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만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이 가정과 연계하여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인식하고 교사와 소통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님들도 교사와 함께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아무리 권리존중 교육을 들어도 부모와 소통이 안 되고 갈등상황이 생기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도 교사와 함께 권리존중 교육을 듣고 그것과 관련하

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의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권리존중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가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함께 상생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더욱 잘 존중해줄 수 있을 거 같아요.

(B교사 면담, 2022.06.20)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서 한 행동에 대해 “왜 그렇게 하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교사는 함께 힘을 합쳐서 한 아이의 보육을 책임지는 공동체니까요. 함께 교육을 들으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H교사 면담, 2022.06.26)

저는 교사들이 권리존중 교육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과 협력 관계인 부모들도 권리존중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진정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실현되기 힘들니까요. 부모들이 따로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교사와 부모가 함께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교육도 좋을 거 같고요.

(A교사 면담, 2022.07.13)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부모들도 영유아 권리존중을 인식하고 교사와 협력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공해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부모교육을 통해 교사와 부모가 협력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이나 교사와 부모가 함께 교육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있었다.

3)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

초임보육교사들은 경력보육교사에 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초임보육교사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초임보육교사들이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생활 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초임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1) 초임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적응 지원

초임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 퇴사를 고민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수평적인 교사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초임보육교사들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처음 초임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 들어오면 어린이집 환경, 새로운 직장동료, 첫 사회생활 등 적응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 같아요. (중략)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초임보육교사들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초임보육교사들이 하루 빨리 어린이집 환경에 적응하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관련하여 신경 쓸 여유도 생길 거라 생각해요.

(D교사 면담, 2022.06.04)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프로그램이나 마음공유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프로그램이나 마음공유프로그램이 있으면 적응하는 데 힘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교사로서 자신감을 가지며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아직 초임보육교사니까 제 능력과 역량에 대해 고민도 되고 자신감이 많이 없는데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면, 마음도 안정되고 여유도 생겨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과를 보낼 수 있을 거 같아요.

(F교사 면담, 2022.06.16)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천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적응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신경 쓸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였다.

초임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처음 일할 때 ‘환영선물’ 형식으로 초임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교사수첩, 필기도구뿐만 아니라,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아동 문제 행동 지도 방법·연령별 놀이 지원 방법 등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핸드북을 하나 만들어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임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적응하느라 정신없어서 따로 교육을 찾거나 들어보질 못해요. 이렇게 환영선물 형식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담긴 핸드북을 나눠주면 현장에서 필요할 때 틈틈이 볼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D교사 면담, 2022.06.04)

다른 직장인들 보면 처음 입사할 때, 입사 축하 선물을 받더라고요. 거기에 필기구, 수첩, 달력, 계산기 등 직장생활 중 필요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희도 초임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하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영유아 권리존중 선서나 관련 서적을 함께 주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A교사 면담, 2022.07.13)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고 일과를 보

낼 수 있도록 ‘환영선물’ 식으로 초임보육교사에게 꼭 필요한 물건 등을 나누어 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처음 입사하여 환영선물을 받는다면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고 환영받는 기분이 들어 초임보육교사의 적응에 도움이 될 거 같다고 하였다.

초임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력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 보육교사는 초임보육교사가 답답하고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무작정 화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린이집에 적응하기도 벅찬데 혼내기까지 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여러 취미생활도 함께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카페도 다니면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사들끼리 위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잘 지내야 하는 동료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함께 상생하는 동료로 생각해 주신다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초임보육교사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거라 생각해요.

(I교사 면담, 2022.07.02)

제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 분위기가 수직적이고 엄격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적응하기 더 힘들어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수직적인 분위기가 주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초임보육교사가 하루빨리 어린이집에 적응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편안한 교사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교사 면담, 2022.07.13)

초임보육교사들은 위계질서가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교사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를 요구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교사 분위기 속에서 훨씬 어린이집 적응을 잘할 수 있으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경력보육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였다.

(2)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소통 공간 마련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육교사나 원장이 불편하여 조언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요구하였다.

제가 경력이 많지 않아 경력 보육교사에게 질문하고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바빠서 물어볼 여유도 없고 직접 여쭙보기 무섭고 혹시나 그런 것도 모르냐며 혼이 날까 봐 제대로 물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 편히 경력 보육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 보육교사 카페에 글을 남겨도 답글이 달리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답글이 달리지 않기도 해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지 않으니깐요.

(C교사 면담, 2022.06.17)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경력 보육교사나 원장님께 물어볼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히 내향적인 초임보육교사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으니 덜 스트레스 받고 좋을 거라 생각해요. 내향적인 초임보육교사는 대면으로 질문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요.

(D교사 면담, 2022.06.04)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과 관련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유아 권리존중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정보를 일주일에 한 번씩 피드로 업로드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디엠으로 질문을 받아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도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인스타그램 자주 들어가고 그걸 통해 소통 잘하니까요.

(I교사 면담, 2022.07.02)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SNS를 통해 편하게 영유아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모르는 점을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오픈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길 요구하였다.

경력별로 영유아 권리 존중에 관한 생각도 다르고 겪는 어려움도 다를 거라 생각해요. 초임보육교사들이 겪는 영유아 권리 존중, 3~4년 차 보육교사들이 겪는 영유아 권리 존중, 고경력보육교사들이 겪는 영유아 권리 존중 등 경력별로 교사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B교사 면담, 2022.06.20)

제가 초임교사라 경력 선생님들과 다른 저만의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천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경력 선생님들은 경력 선생님들만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각 경력별로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교사교육을 차별화하여 준비해주면 좋겠어요.

(C교사 면담, 2022.06.17)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교육을 진행할 때 초임보육교사만이 겪을 수 있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교사교육에 포함하여 차별화하길 요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유아 권리 존중 관련 교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교사들끼리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원 내에서 반에서 겪은 권리 존중 하기 어려웠던 사례를 공유해서 어떻게 하면 권리 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원장님, 주임 교사, 동료 교사와 의견을 나눠서 확실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교사 간에 발생한 갈등상황이 있으면 함께 풀고 소통하고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교사 분위기가 좋으면 그만큼 영유아 권리 존중도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G교사 면담, 2022.06.22)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도 권리존중 관련하여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익명으로 물으면 불편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물을 수 있고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궁금하기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같은 보육교사인데 함께 의견 주고받으며 상생하면 좋을 거 같아요.

(I교사 면담, 2022.07.02)

위의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생각을 주고받거나 다른 어린이집 교사와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의논하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도움이 될 거라 하였다.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어느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선까지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교육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아동권리존중도 있어요. (중략) 권리존중 관련하여 여러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교사가 이해되지 않는 아동권리존중 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거나 변경했으면 좋겠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너무 다르고 모호한 개념인 거 같아요.

(H교사 면담, 2022.06.26)

영유아 권리존중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찾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궁금해서 찾아봤을 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매뉴얼은 없고 간단한 권리존중 상호작용 사례 정도가 적힌 매뉴얼만 있었어요. 보육교사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영유아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영유아 권리존중으로 보아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의 이야기를 들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영유아 권리존중 매뉴얼을 만들면 좋을 거 같아요.

(J교사 면담, 2022.06.21)

위의 사례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은 특히 초임보육교사에게 영유아 권리

존중의 개념이 어렵고 모호하다고 하였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영유아 권리 존중을 확실히 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 공유하길 요구하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초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경험을 알아본 결과,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가로서 자질 키우기, 영유아 중심에서 보육 실천하기, 가정과 연계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하기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가로서 자질을 키우기 위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다짐하고 의식하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일과 중 감정조절이 되지 않으면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이 발생하므로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이해하기 위해 원장 및 경력교사와 영유아 권리존중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관련 자료나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동료교사들과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는 윤매자(2010)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초임보육교사들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해 원장 및 경력교사 등 동료교사의 지원과 함께 하는 교육의 기회가 중요함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임보육교사들도 원내 교사교육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영유아 권리존중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경험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초임보육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교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여유를 가지고 영유아 권리존중을 인식하며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정선영(2017)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영유아 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일과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초임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중심에서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의 개별 성향을 존중하거나 일과 운영에 주도권을 제공하여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또한 급·간식 시간이나 낮잠 시간, 바깥 놀이시간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영유아들이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김진숙, 서영숙, 2012)는 견해와 상통하는 것으로 초임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권리존중을 위해 영유아의 개별 성향을 존중하고 일과 운영에 주도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권리'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권리와 관련된 동화, 동극, 동요 등을 찾아보고 영유아가 이를 접하고 자신은 소중한 존재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셋째,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내에서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영유아 권리존중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에서의 영유아 권리존중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참여해야 교사와 영유아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김은영, 2017)는 점에서 초임보육교사들이 부모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부모에게 권리존중 관련한 부모통신문,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부모가 영유아 권리존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다은과 안선희(2022)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있어서 부모-교사 협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교사와 부모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영유아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때 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있어서 부모와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과 다양한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부모교육자료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보람과 어려움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보람과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교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에 부담스러운 업무와 정해진 일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딜레마를 겪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내 부딪치는 인간관계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

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우진경(2021)이 보고한 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을 통해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자기 긍정과 보람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의 초임보육교사들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이 교사를 믿고 따르며 좋아하는 모습과 영유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며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모습에서만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의 모습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유를 가지고 영유아 권리존중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으나 이번 면담을 통해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한 경험을 이야기하니 자신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인식하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가 보람과 뿌듯함 같은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되면 내재적인 동기유발이 일어나고 자기효능감이나 목표지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2). 따라서 초임보육교사들이 교직생활 초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과 함께 교사 스스로도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초임보육교사들은 정해진 일과와 부담스러운 업무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정해진 일과를 따르다 보니 놀이를 중단하고 다음 일과를 진행해야 할 때, 급하게 급·간식을 정리해야 할 때 권리존중 보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별활동 시간도 영유아가 하던 놀이를 강제로 중단하고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참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영유아 권리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이용교(2004)가 교사는 영유아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동회나 작품발표회를 참여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한 것과 나은숙과 양지애(2011)의 연구에서 유아가 특별활동 시간에 유아의 생각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초임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초임보육교사들도 정해진 일과 및 행사, 특별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보육현장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이나 행사 운영에 있어 영유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임보육교사에게 많은 서류 업무와 연장 보육업무를 요구하여 체력적으로 지치고 잦은 야근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의 서류 업무가 많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서영미(2020)의 연구와 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현장에서 정해진 일과를 고집하기보다는 영유아의 생각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권리존중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이론이 이상적이기만 하고 여러 권리가 충돌하거나 교사마다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달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임보육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과 관련한 이론과 보육현장에서의 실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교사들이 이론대로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기에는 실제적인 훈육과 영유아 권리존중의 경계가 모

호하여 어려움을 느낀다는 김은영, 이화도(2017)의 연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느 정도 선에서 영유아의 행동을 허용해주어야 할지, 훈육과 권리존중은 어떤 기준에 맞추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초임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과 영유아 권리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끼고 있다는 김견미, 구은미(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영유아 권리존중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있어서 혼란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초임보육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의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이해하고 보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확실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권리가 충돌하다 보니 권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하나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또 다른 권리는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딜레마를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원장·경력교사·부모와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관계된 사람들과의 갈등 경험은 우진경(2021)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원장 및 동료 교사와 권리존중 실천과정에서 각자의 기준이 달라 의견 차이를 겪는다고 보고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며, 보육현장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교직원 및 부모 간의 긴밀하고 활발한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스스로도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실제 사례에 기반한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임보육교사들은 안전문제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니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존중해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특히 초임보육교사들은 안전문제

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을까 걱정되어 자유롭게 놀 권리를 존중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영미(2020)가 보고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일과를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중심으로 보내며 이를 통해 통제적 교실 분위기에서 영유아에 대한 소극적 권리존중을 보인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초임보육교사를 비롯해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직 경험이 많지 않은 것에서 오는 미숙함으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미숙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린이집 생존과 적응을 더 우선시하여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버티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스스로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힘겨워하고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부터 어려움을 느끼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데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김견미, 구은미(2018)의 연구 결과인 권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생존하기에도 힘든 어린이집 생활과 예비교사로서 꿈꿔왔던 현장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실제 현실의 차이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초임교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에 따라 초임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적응하면서 보다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초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내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부모의 과한 요구와 보여주기식 행사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초임보육교사를 믿지 않는 학부모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교사가 학부모와의 소통과 갈등으로 인해 에너지 소모가 많아 결국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고재운(2012)의 연구와 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원장 및 경력교사와의 관계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초임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눈치도 보이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정동재와 김진옥(2021)은 교사와 원장의 관계가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서 일과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초임보육교사들이 원장, 부모 및 동료 교사와 함께 상생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임보육교사의 어려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초임보육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의 연령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담 과정에서 영아반을 담당하는 초임보육교사들이 유아반을 담당하는 초임보육교사에 비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아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서툴러(김지혜, 2019) 교사가 영아의 생각을 미처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유아반에 비해 영아반 초임보육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외적 지원과 효율적인 교사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선적으로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충분한 놀잇감이 갖추어져 영유아의 놀 권리가 충족되도록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교사의 권리도 존중해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수준이 낮으면 아동학대 예방에 어려움을 겪으며 보육의 질이 낮아지게 되며(이슬, 2016),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높아진다(김혜진, 2018)는 점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임보육교사들은 불필요한 서류 업무, 과도한 행사준비 등을 개선하여 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원하고 있었다. 이는 서류 업무가 가중될 때 영유아를 지도하는 것이 어려워 결국 영유아 권리존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서영미(2020)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초임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불필요한 서류 업무나 과도한 행사준비 등을 개선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적절한 보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효율적인 교사교육을 지원하기를 요구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보육현장 속에서 적응하느라

여유가 없어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홍보 팜플렛을 발송하거나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교사교육을 SNS나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올려주길 원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세미나 형식의 교사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교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사교육이 진행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함께 초임보육교사들은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부모를 위한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도 마련해주길 요구하였다. 이는 민영은과 임민정(2019)의 연구에서 부모도 가정 내에서 자녀의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내용과 상통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녀에 대한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을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며 부모가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초임보육교사들은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이 마련되기를 요구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초임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환영선물 형식으로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놀이 지원 방법이 담긴 책자나 usb, 다이어리, 핸드크림 등을 제공해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SNS를 통해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과도 자유롭게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초임보육교사들은 수평적인 교사 분위기 속에서 경력교사와 자유롭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내 지지적인 분위기 조성이 우선시되어 초임교사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고주영(2003)의 연구를 반

영해볼 때, 초임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어린이집의 자유로운 소통문화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조직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영유아 권리존중이 향상될 수 있다(이유미, 안지혜, 2014)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형성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경험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초임보육교사들은 초임시기라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경험이 부족하여 원장 및 동료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자료나 영상을 살펴보기도 하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초임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과 중 영유아 권리존중을 다짐하고 의식하고 있었으며 영유아의 개별 성향을 존중하기도 하고 일과 운영에 주도권을 제공하여 영유아 중심에서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을 겪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본인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가정 속에서도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으며 부모통신문을 통해 영유아 권리와 관련한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고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유아 권리존중을 주제로 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도 권리존중을 인식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과정에서 경험하는 보람과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영유아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점점 성장하는 교사 본인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반면에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정해진 일과와 교사에게 주어진 보육 외 업무로 인해 보육현장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너무 이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였으며,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권리가 충돌하거나 교사 및 부모 등 개개인마다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달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특히,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경력교사의 눈치, 학부모의 과한 요구와 불신 등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셋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를 살펴보면,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및 교사 권리를 증진하여 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세미나 형식 등의 교사교육 방법을 통해 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거나 부모와 교사가 함께 듣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초임보육교사의 적응을 지원하거나 수평적인 교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유롭게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

련되기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보육현장에서 초임보육교사들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경험을 토대로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알아봄으로써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지역마다 지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 있는 초임보육교사들의 경험을 살펴본다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보육교사의 경력 차이에 따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나 실천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요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경력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의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만 0세 학급을 담당한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 짐작된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만 0세 학급을 담당한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경험과 어려움 및 요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_____ (2017).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http://www.mohw.go.kr>에서 2022년 4월 3일 인출.
- _____ (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19). 아동권리협약 30주년, 이행을 위해 머리 맞댄다. <http://www.mohw.go.kr>에서 2022년 4월 2일 인출.
- _____ (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_____ (2020). 아동중심·아동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http://www.mohw.go.kr>에서 2022년 4월 2일 인출.
- _____ (2020a).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20b).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해설서**.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21). **2021년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15).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1권**.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_____ (2019). **존중해 주세요 영유아의 권리**. 서울: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강상이(2002). 교사 발달 측면에서 본 유치원 초임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강은영(2020). 영아반 초임보육교사의 전문성지원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 강인숙, 이희경(2016). 유아교사의 인성과 전문성 발달이 영유아 권리존중

- 실행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교육연구**, 20(4), 49-66.
- 강희정(2018). 보육교사의 아동권리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고선아(2008). 사립유치원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학부모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에 관한 이야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고영윤(2018).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고재운(1997). 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교육학적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고주영(2003). 한 사립유치원 초임교사의 교직생활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고효주(2019). 보육교사 행복감이 영유아 권리존중실행과 교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구미향, 황소영(2014). 유아의 인권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4(6), 439-465.
-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620호(2021.12.21.).
<http://www.law.go.kr>에서 2022년 4월 10일 인출
- 권규리(2019). 학부모에 대한 초임유아교사들의 인식.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권영미(2020). 사립유치원 초임교사와 경력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지원요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건미, 구은미(2018).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대한 보육교사의 딜레마: 초임교사와 경력교사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과정연구**, 8(2), 25-48.
- 김명희(2020).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행복감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8). 보육시설의 조직문화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12), 596-610.
- 김성미(2012). 어린이집교사의 보육신념, 행복감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수현(2013). 초임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숙자, 김현정(2008).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아동과 권리**, 12(2), 117-134.
- 김순영(2005).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신애(2018).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17). **질적연구방법론1: BRICOLEUR**(제3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은영(2017). 영유아 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경험.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이화도(2017). 영유아 권리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과 경험. **열린유아교육연구**, 22(4), 191-214.
- 김은옥(2019).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권리인식이 아동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배재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김정화(2014),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15(3), 343-364.
- 김주영(2021).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실행 및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구조적 관계 분석.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김진숙(2009).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서영숙(2012).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 항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133-162.
- 김한나(2022). 보육교사의 권리인식이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전문성의 매개효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현실(2014). 초임보육교사의 멘토신뢰와 멘토링 기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혜진(2020). 예비유아교사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천한 유아권리존중 사례 분석. **아동과 권리**, 24(4), 691-719.
- 김혜진(2018). 보육교사의 처우수준과 직무스트레스, CCTV 통제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효정(2020). 보육교사의 대인관계능력이 아동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희경(2021). 영유아 교사의 직업정체성이 영유아권리존중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나은숙, 양지애(2011). 유아의 권리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영유아교육·보육연구, 4, 71-93.
- 도순남(1999).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이직성향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17(3), 275-300.
- 류수정(2012).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실태. 경성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모은경(2022).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무만족도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문명란(2016).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도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문정화(2012). 초임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민영은, 임민정(201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혁신연구**, 29(3), 379-404.
- 박은연(2022).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은혜(2009).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 박은혜, 배소연, 이정옥, 임승렬, 조부경, 조운주, 조형숙, 황보영란(2002). **유아교사 교육의 최근 연구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지현(2021).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른 두 초임 교사 집단의 이야기: 포토보이스 연구 접근을 통하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한비(2014).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혜연(2022).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 및 어려움.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혜진(2020). 보육교사의 민감성, 아동권리인식, 조직문화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효선(2022). 경력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초임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밥장(2017).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서울: 한울림.
- 배지희, 방혜경, 권미혜(2012). 유치원 초임교사의 부모참여 경험 분석. **아동교육**, 21(3), 49-6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15~’19)」 수립.
<http://www.mohw.go.kr>에서 2022년 4월 2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세종:

-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영미(2020).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 존중 보육 실행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25(5), 129-157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2009). **보육교사용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건복지부 정책연구보고서.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2009).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한국유아교육포육복지학회**. 13(3). 213-232.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2011). 유아권리 존중 활동을 통해 자녀의 행복을 찾아가는 한 어머니의 사례연구.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56-256.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보육교직원용)**. 서울: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재복, 권정숙, 손충기, 신봉섭(2009). **교사교육론**. 서울: 태영출판사.
- 성지윤(2020).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송나리, 권정윤(2013). 유아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초임교사들의 경험과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243-270.
- 송지희(2020). 보육교사의 아동권리인식과 긍정심리자본이 아동권리존중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신현경(2012). 유치원 초임교사 교직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신현주(2016). 유아교사의 교사발달단계와 임파워먼트,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심정선(2011). 보육교사의 교직 윤리 인식과 영유아 권리존중과의 관계. **한국윤리학회**. 1(83)283-305.
-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권리 인식조사**.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 한국어판**.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안사라(2012).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안선신, 윤현숙 (2019).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 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19(20), 71-84.
- 엄상희(2021). 어린이집 보육교원의 공감능력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염지숙, 이명순, 조형숙, 김현주(2008). **유아교사론**. 경기 파주: 정민사.
- 오숙자, 최진아(2014). 보육교사의 적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5(1), 47-61.
- 오현미(2009). 초임보육교사 지원에 대한 인식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우진경(2021). 유아교사의 영유아권리존중 실천 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5), 851-87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6).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1989).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
<http://www.unicef.or.kr>에서 인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서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유수정(2012). 통합적 안전교육활동이 만2세 학급 영아의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유순이(2003). 유아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직능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유지민(2003). 아동의 권리인식 및 공감과 권리옹호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육교사용**. 서울: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
- 윤매자(2010).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윤진주(2017).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의 권리 중요성 및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2), 227-240.
- 이슬(2016).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18). 보육교사의 인권의식과 전문성인식이 영유아권리존중보육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정희정(2018). 보육교사의 인권의식과 전문성인식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27(4), 211-229.
- 이다은, 안선희(2022).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부모-교사 협력,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283-300.
- 이도례(2016). 어린이집 일과에서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비교 및 교사의 갈등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미향(2020). 보육교사의 아동권리인식 및 보육신념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숙자(2014). 중년 새터민 초임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이용교(2004). 아동의 참여권에서 본 영유아보육·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89-110.

- 이유미, 안지혜(2014).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3), 239 - 18(4), 569-591.
- 이은경(2018).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유아권리존중실행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19). 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인식 및 아동권리존중 실행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01). Katz의 교사 발달단계에 따른 유아교사의 전문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은화(2020). 보육교직원의 윤리강령에 의한 인권의식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12). 사립유치원 중일반 초임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이재연(1999). 소파 방정환과 한국 아동의 권리. **아동권리연구**, 3(2), 107-119.
- 이재연, 강성희(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과 권리**, 1, 65-83
- 이재연·안동현·황옥경·구은미·한유미·이완정·한지숙·김령룡(2015). **아동권리 레토릭과 현실**. 경기:교육과학사.
- 이지선(2018).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21).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인식과 교사효능감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12).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지은(2017).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지현(2002).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과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진화(2014). 보육교사의 교육신념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현경(2000). 유치원 초임교사가 교직 수행 시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5(2), 185-204.
- 이혜경(2020).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와 양육효능감 및 교사신뢰 간 관계.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혜선(2020). 영유아교사의 교직윤리의식과 교사효능감이 영유아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희경(2019). 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의 구조적 관계.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임경옥, 홍나미, 손경숙(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고양: 공동체.
- 임시아(2017). **아동권리와 복지**. 고양: 공동체.
- 장민경(2018). 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정동재, 김진욱(2021). 영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영유아권리존중보육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아동과 권리**, 25(2), 187-204.
- 정민지(2020). 유아교사에 대한 원장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아동권리 인식과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정선영(2017). 영유아교사의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과 훈육 사이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정유리(2015). 초임유아교사의 긍정적 교직경험 및 인식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정은경(2022).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전문성인식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정혜영, 구은미(2016). 보육교사의 영유아권리존중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아동과 권리**, 20(2), 199-221.
- 정혜옥, 이옥형(2011).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幼兒教育研究**, 31(3), 31-54.
- 정효진(2021). 초임보육교사의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SNS기반 멘토링(mentoring)의 과정 및 의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조은영(2011). 사립유치원 초임교사 직무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조하선(2019). 보육교사의 직무환경, 심리적 소진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최은혜(2017).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및 어려움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최정수(2017). 초임보육교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자아탄력성 및 교직선택동기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최진아, 이완정(2020).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과정 지원행동이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보육교사의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4, 103-123.

크리스티네술츠 라이스, 공현(2010). **청소년 인권 수첩**[Nachgefragt.

Menschenrechte und Demokratie](안미라 역). 서울: 양철북.

한국보육진흥원(2021). **보육교사자격기준 변경안내**.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아동모니터링센터(2013).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홍효의(2017).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 실행수준, 교사민감성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연구. 서울, 한국: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황경숙(2005). 입문기 초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입문과정에 대한 인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황미선(2019). 영유아교사의 전문성과 행복감이 영유아권리준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황인애, 봉진영, 권경숙(2017). 권리준중보육실행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어려움과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2), 127-149.

황혜익, 김미진, 탁정화(201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인식
수준 및 대처방안 연구. **유아교육연구**, 32(2), 211-239.

Ashton, P. T. (1984).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5),
28-32.

Banko-Bal, C., & Guler-Yildiz, T. (2021). An investig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attitudes, behaviors, and views
regarding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 Education Policy*, 15(1), 1-26.

Berliner, D. C. (1988). Implications of studies on expertise in pedagogy
for teacher education and evaluation. *New directions for teacher*

assessment, 39-68.

- Brock, B. L. & Grady, M. L.(2000). From first-year to first-rate :Principals guiding beginning teachers. California : CrowinPress, Inc.
- Bullough, R. V. (2013). First year teacher: A case study. 교사의 첫 해 나기. (한진상 역). 경기: 공동체. (원저 1989년 출판)
- Burden, P. R. (1979). Teacher's perceptions of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s on thei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Burke, P. J., Christensen. J. C., Fessler, R., McDonnell, J. H., & Price, J. R., (1984). Teacher career stage: Implications for staff development. IN: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 Fuller, F. F. (1969). Concerns of teachers: A development of conceptualiz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6(2), 207-226.
- Huberman, M. (1989). The Professional Life Cycle of Teachers. Teachers College Record, 91(1), 31-57.
- Kathleen, F. K. (2008). Being an Effective Mentor. CA: Corwin Press.
- Katz, L. G. (1972). Developmental stage of preschool teacher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50-54.
- Katz, L. G. (1984). The professional early childhood teacher. Young Children, 39(5), 3-10.
- Katz, L. G. (1985). Research currents: Teachers as learners - Language Arts, 62(7), 778-782.
- Newman, K. K., Applegate, J. H., & Burden, P. R. (1980). Helping

teachers examine their long-range development. In: *Teacher Educator*. (Teacher Educator, Spring, 15(4), 7-14.

Reiman, A., & Parramore, B. (1994). First year teachers' assignments, expectations, and development: A collaborative investigation. In.

ABSTRACT

Exploring the Experience of a Beginning Childcare Teacher in Respect of Infant Rights

Su-Been Yoo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in respect of infant rights. In other words, by examining how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practice infant rights-respecting child care, and what are the rewards, difficulties, and demands experienced in the practice process, we will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to practice higher-quality infant rights-respecting child care. According to this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1. How about the practice of childcare in respect of infant rights of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2. How are the rewards and difficulties of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in respecting infant rights?
3. What are the demands of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to improve childcare in respect of infant rights?

In order to collect data for this study, a total of 20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10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with less than 3 years of experience from May 6, 2022 to July 13, 2022. Considering that the childcare practice of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daycare center, it was selected so that work, public, and private daycare centers could be evenly included when selecting study participant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interview transcript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field notes of researchers, journals of researchers and research participants, and documents related to respecting infant rights were repeatedly read, analyzed,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research questions.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various data such as in-depth interviews, document data, field notes of researchers, journals of researchers and research participants were collected, reviewed and periodically consulted by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xperience of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in respect of infant rights,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lacked experience in respecting infant rights, seeking advice from directors and fellow teachers, or looking at materials and videos related to respecting infant rights. In addition, even though it was the first term, the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were determined and conscious of respecting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during the day, respecting the individual tendencies of infants, providing leadership to infants during work and operation, and trying to practice childcare.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thought it was important for infants to experience being respected for their rights, but it was also important for infants to recognize their own rights, so they were trying to help infants recognize their "rights" naturally. At the same time, parents were continuously communicating with parents so that infant rights can be respected at home, distributing data on infant rights through parent correspondence, and providing parent education on the subject of infant rights on their own.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wards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by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infant rights respect,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felt rewarded by respecting infants and their growing teachers. On the other hand,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were finding it difficult to practice respect for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due to their fixed routines and tasks other than childcare given to teachers. In addition, the theory of respect for infant rights was ideal, and various rights clashed or teachers had different perceptions of respect for infant rights, so they were experiencing various dilemmas while practicing child care. In particular,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put priority on adapting to daycare centers as teachers, so there were cases where they did not care about child care and did not practice properly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infant rights. In addition, it was said that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have difficulty in practicing respect for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due to the perspective of career teachers and excessive demands and distrust of parents.

Third, looking at the needs of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to improve infant rights respect,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were asking for support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eachers could practice infant rights by appropriately matching the teacher-to-infant ratio and improving the treatment and welfare and teacher rights. In addition, in terms of teacher education methods respecting infant rights, it is necessary to share various opinions with each other through teacher education methods such as seminars, or to provide education for parents and teachers to listen to together. In addition, various adaptation programs were prepared for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to support the adaptation of beginning childcare teachers or to create a horizontal teacher atmosphere to freely receive advice on respecting infant rights.

